



五倫行實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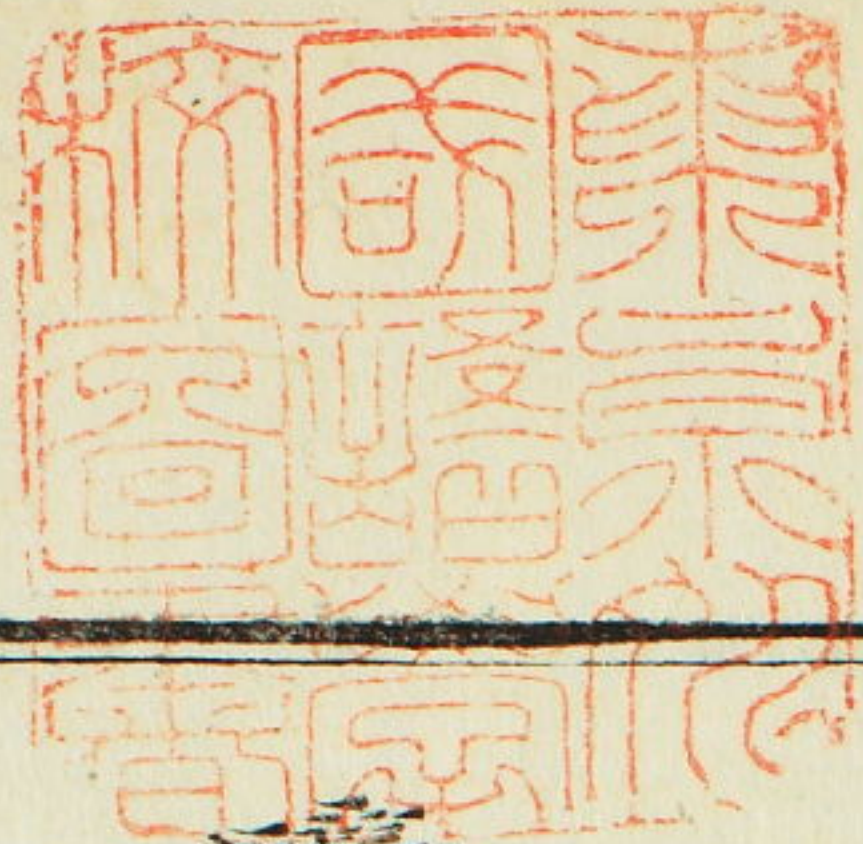
韓版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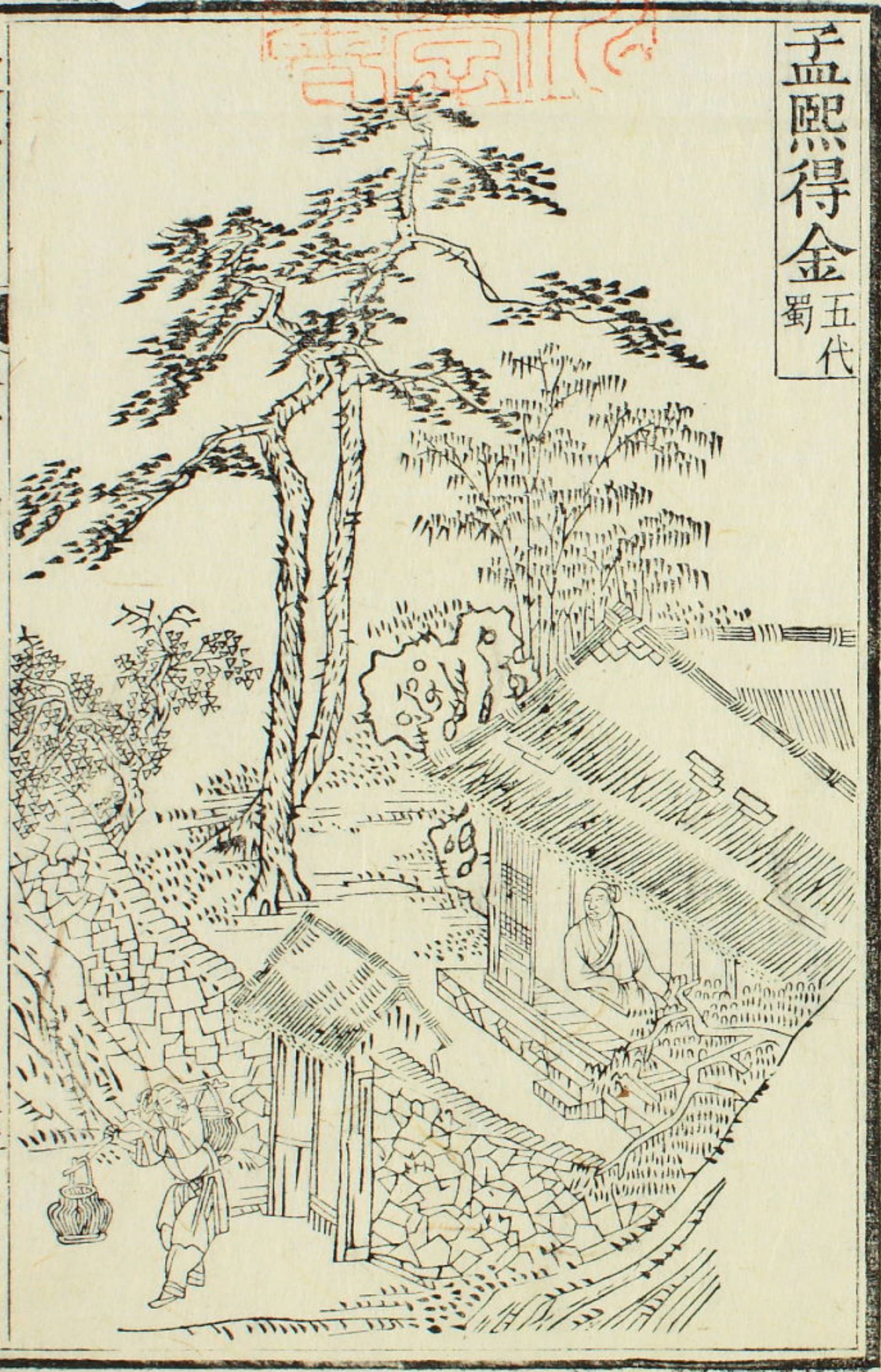
9
1439
2



9
1439
2



孟熙得金
五代蜀



五命行實圖

卷一

孝子

四九

孟熙得金

孟熙販果實養親承顏順志不憚苦辛其父常云我雖貧養得一曾參及父亡絕漿哀號幾至滅性布苦于地寢處其上三年不食鹽酪遠近歎服因見鼠掘地得黃金數千兩因成巨富

詩家貧負販養嚴親承順何嘗憚苦辛歿後居喪能盡禮行同曾子異常人掘鼠何由遽得金孝親於此感天心一時不但家能富贏得香名說到今

冥희는촉사름이니과실을푸라어버이를봉양호디는빛출바드며빛을순히히여신고히물새

리디아니하니그아비미양닐오디내비록가난
^{공근데지니지} ^{극호호지라} ^을길넛노라하더니아비
죽으매입에슈당을쓴코슬피블으지저거의죽
게되고거적을싸히퍼고그우히거쳐히여삼년
을염장을먹디아니하니원근사름이탄복히더
니취를보고싸흘푸다가황금수천냥을어더인
히여거뵈되니라

五倫行實圖
徐積篤行

宋



徐積楚州人三歲父死朝朝求之甚哀母使讀孝經輒淚落不能止事母至孝朝夕冠帶定省應舉入都不忍捨其親徒載而西登第舉首許安國率同年入拜且致百金爲壽謝而却之以父名石終身不用石器行遇石則避而不踐母亡悲慟嘔血廬墓三年雪夜伏墓側哭不絕音翰林學士呂溱過其墓聞之爲泣下曰使鬼神有知亦垂涕也甘露歲降兆域杏兩枝合爲榦旣終喪不徹筵几起居饋獻如平生州以行聞詔賜粟帛元祐初爲楚州教授又轉和州防禦推官徽宗賜諡節孝處士

詩嬰孩亡父日哀求感切中情涕泗流事母更能
躬孝養當時名士復誰儔 致養居喪總盡精神
明默贊顯祥禎重膺朝命榮褒寵今古人傳節孝
名

서적은 송나라 초주사름이니 삼세에 아버지 죽으
니 아침마다 초즈며 심히 설위하고 어머니 고품
효경을 넓히면 문득 눈물을 굶치디 아니하고 어
미를 지효로 섬겨 관과 석를 초아도 석으로 문
안하며 과거 보라 서울을 시 초마어미를 썬나디
못하여 혼자 지로 실어 갖더니 급제할 때 장원 허

안국이 동년

동방과거호
사름이라

을 거느리고 드러와 뵈고

빚금을 주어 현슈하라 한다 샐레하여 밧디 아니
하니라 아버지 일홈이 돌석지라 하여 종신토록 돌
그르슬 아니 쓰고 길히셔 돌을 만나면 피하고 밧
디 아니하며 어머니 죽으매 비통하여 피를 토하고
삼년을 녀묘하여 눈오는 밤이면 묘측에 엎디여
을기를 굶치디 아니하니 한림후스녀진이 그 무
덤을 디나다가 듯고 눈물을 느리와 곧 오디 귀신
이 아름이 이실던대 또 호눈물을 지우리라 하여
라든이 슬이 히마다 무덤알피느리고 슬고나모

두가지 합하여 호등결이 되엇더라 거상을 뵈듯
되게 연을 컸디 아니호고 문안과 음식 드리기를
상사 못티호니 원이 호형으로 주문현대 곡식과
비단을 주시고 후에 초쥬교슈를 호고 또 화쥬방
어쥬관벼슬로 올므니라 휘종황제시 호를 주셔
절호쳐시라호니라

吳二免禍 宋



吳二臨川小民事母至孝一夕有神見夢曰汝明日
午刻當爲雷擊死吳以老母在堂乞救護神曰受命
於天不可免也吳恐驚其母凌晨具饌以進白云將
他適請暫詣妹家母不許俄黑雲起日中天地冥暗
雷聲闐闐然吳益慮驚母趣使閉戶自出野田以待
頃之雲氣廓開吳幸免禍亟歸拊其母猶疑神言不
實未敢以告是夜復夢神曰汝至孝感天已宥宿惡
宜加敬事

詩宿譴應知合殞生夢中神報甚分明凌晨具饌
還供母欲適他家恐母驚 雷霆震怒忽轟闐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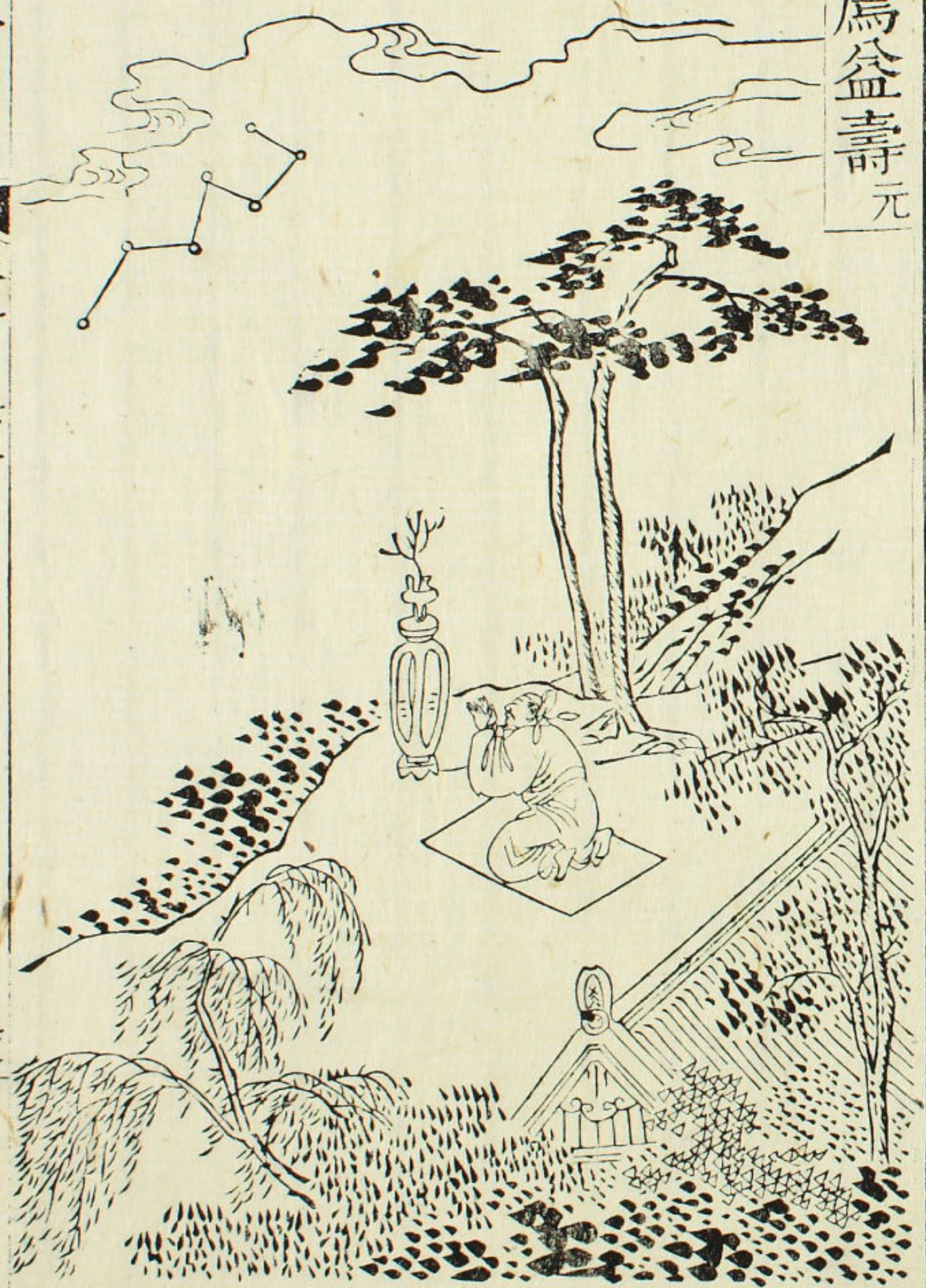
罰從容出野田雲散倏然天日霽只緣事母孝心

虔

오이논송나라님천벽성이라어미들지효로섬
기러니흐로저녁은신령이숨에뵈여곧오디네
닉일오시면되딩에마자죽으리라오이늬은어
미이시니구호흐쇼셔흐고빈대신령이곧오디
하늘과명을받주와시니면티못흐리라오이그
어미놀날가두려위흐여새베음식을초아드
리고솔오디장춧다른디나가니청컨대잠간누
의집의가쇼셔어미허티아니흐더니이으고검

은구름이나러나며히가나즌흥여셔런디어둡
 고우레소리딘동흥니오이더옥어미놀날가념
 녀흥여밤비문을닷고스스로들밧히나가기드
 리더니이응고구름이화연히열리노디라오이
 다형이화를면흥고급히도라와어미를어르문
 지고오히려신령의말이맛디아니물의심흥여
 감히고티못흥터니이날밤에또숨을쉬니신령
 이곧오디네지극흥효성이하늘귀감동흥어이
 의전죄를샤흥니맛당이더옥공경흥여섬기라
 흥터라

王薦益壽元



王薦福寧人父嘗病甚薦夜禱於天願減己年益父
壽父絕而復甦告其友曰適有神人黃衣紅帕首恍
惚語我曰汝子孝上帝命錫汝十二齡疾遂愈後果
十二年而卒母沈氏病渴語薦曰得瓜以啖我渴可
止時冬月求於鄉不得行至深奧嶺值大雪薦避雪
樹下思母病仰天而哭忽見巖石間青蔓離披有二
瓜焉因摘歸奉母母食之渴頓止

詩父病精虔禱上天願將已筭益親年孝心感格
天心順恍惚神將帝命傳 母渴思瓜正歲寒那
堪山路雪漫漫雙瓜忽產空巖裏歸奉慈親痼疾

安

왕천은원나라복녕사람이니아비일즉병이등
흐매천이밤에하늘귀비되원컨대나흘감흐
여아비슈를더흐여디이다흐더니아비귀절흐
엇다가다시씨여그벗드러닐러존오디앗가신
인이누른옷납고블근건쁘고황홀이날드러닐
오디네아들이효행이이시니상테명흐샤네나
열들을더흐노라흐더라흐고병이드디어나아
그후열두히만의죽으니라어미심시쇼갈병이
이서천드러닐오디외를먹으면내갈병이나으

리라 후되이 썩겨올이라 모을에 구 후되엇디 못
 후고 후 후여 심오령이라 후는 사히니 르러 대설
 을만나 천이나 모아 래셔 눈을 피 후며 어의 병을
 생각 후고 하늘을 우러러 우터니 흘연 바 회스이
 를보니 프른너 출이 얼 첫는 디외 돌히 잇거늘 사
 다가 어의게 드리니 어의 먹고 갈 병이 즉시 나으
 니라

劉氏孝姑

明皇



劉氏新樂人韓太初妻太初洪武七年遷和州挈家
行劉事姑寧氏甚謹姑在道遇疾劉刺臂血和湯以
進姑疾愈比至和州太初卒劉種蔬以給食養姑尤
謹又二年姑患風不能起時盛暑劉晝夜侍側驅蚊
蠅姑體腐蛆生又為齧蛆蛆不復生及姑病篤齧劉
指與之訣劉號呼神明割股肉和粥以進姑復甦越
月而卒劉殯舍側欲還葬舅墓哀號凡五年不能歸
事聞 太祖皇帝遣中使賜劉衣一襲鈔二十錠官
為送喪歸葬旌門復家

詩刺血和湯姑疾甦夫亡無食種園蔬蛆生姑體

偏能齧盛夏蚊蠅更為驅 朝廷特為返姑喪始
得還鄉葬舅傍旌表門閭兼寵賚古來孝婦實無
雙

뉴시는 황명신락사름이 오한태초의안히니
태최홍무 명태조대
년호라 칠년에 화주에 귀향갈시가속
을드리고가더니 뉴시식이미섬기물심히공근
흔디라식이미길히셔병들거늘풀을질러피내
여약에섯거드리니 병이나으니라 화주에니르
러태최죽으니 뉴시는 물을심거먹으며식이미
봉양호물더 옥공경하더니 또 두히만에식이미

풍병드러능히니디못하니이썬구열이라누시
듀야로겻히되셔모기와파리를늘리고식어미
몸이석어귀덕이나거늘썬입으로귀덕이를생
니다시나디아니하더라식어미병이둥하야누
시의손가락을너흘어영결하니누시신명을브
르지디며다리솔을베혀죽에타드리니다시살
앗다가두돌만에죽으니누시집겻히빈소하고
식부의무덤에도라가장소하려하여슬피우러
다스히되되능히도라가디못하더니 래조황
테이일을드르시고등소를보내여누시물의복

일습과은이십명을주시고관가로셔상행을출
혀보내여도라와장소하고정문하고복호한다

婁伯捕虎

高麗



崔婁伯水原吏尙蕞之子尙蕞獵爲虎所害婁伯時
 年十五欲捕虎母止之婁伯曰父讎可不報乎卽荷
 斧跡虎虎旣食飽臥婁伯直前叱虎曰汝害吾父吾
 當食汝虎乃掉尾俛伏遽斫而剗其腹取父骸肉安
 於器納虎肉於甕埋川中葬父洪法山西廬墓一日
 假寐其父來詠詩云披榛到孝子廬情多感淚無窮
 負土日加塚上知音明月清風生則養死則守誰謂
 孝無始終詠訖遂不見服闋取虎肉盡食之

詩崔父山中獵兔狐却將肌肉餒於菟當時不有
 兒郎孝誰得揮斤斫虎顛 捕虎償冤最可憐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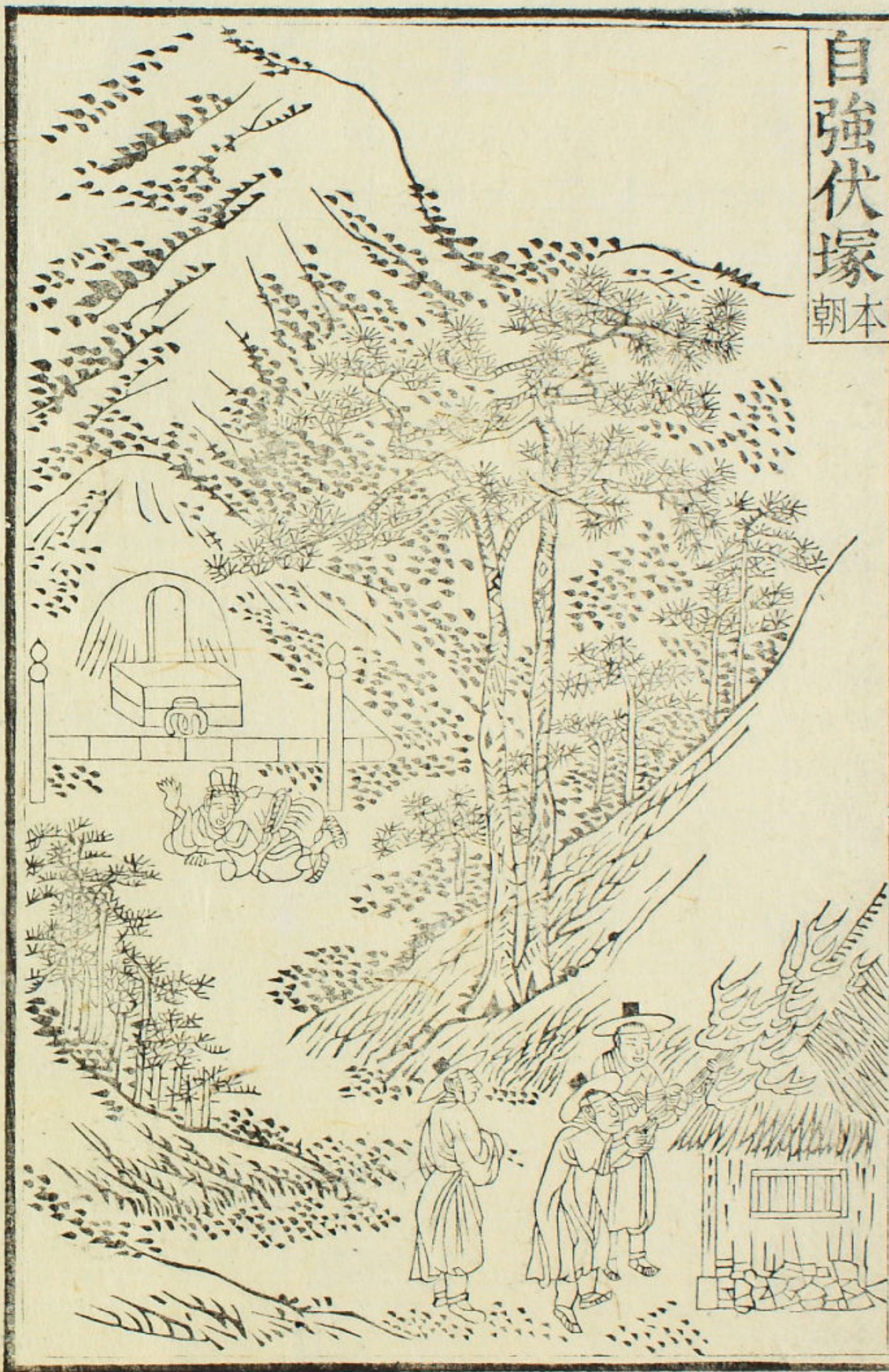
西廬墓又三年小詞來誦眞非夢端爲哀誠徹九泉

최누빅은고려적슈원아전상자의아들이니상
재산영하다가범의게해훈배되니이썸누빅의
나히십오세라범을잡고져하거늘어미말린대
누빅이곧오디아비원슈를엇디아니감흐리오
하고즉시똥귀를메고범의자최를썸오니범이
이의다먹고비불러누엇거늘누빅이바로알피
드라드러범을썸디저곧오디네네아비를해쳐
시니내너를먹으리라범이썸리를치고업디거

늘똥귀로썸어비를헤티고아비썸와슬을내여
그러시담고범의고기를항에녀허물가온대똥
고아비를홍법산셔편에장스하고녀묘하더니
홀노섬을썸니그아비와셔글을옴허곧오디가
시똥블을헤티고효주의집에너르니정이늦기
미만흐매눈물이무궁하도다흠을져셔날마다
무덤애더하니지음은명월청풍이로다사라셔
봉양하고죽으매덕희니뉘닐오디회시종이업
다하리오옴기를다하매문득보디아니하더라
거상을막차매범의고기를내여다먹으니라

自強伏塚

朝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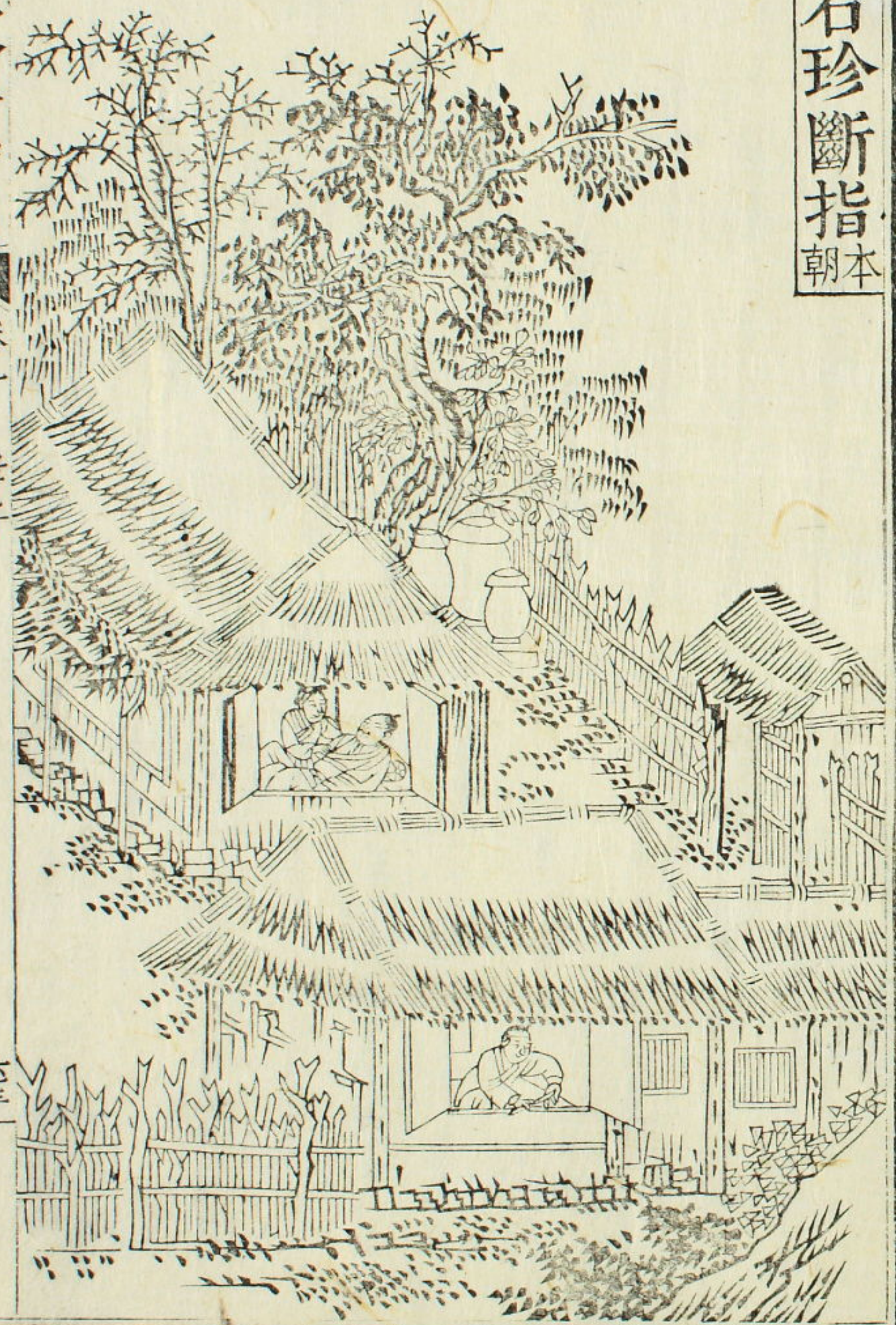
金自強星州人年幼喪父奉母承順無闕母喪不用
 浮屠一依家禮比葬遷父合葬廬墓三年服闋又欲
 爲父更居三年妻黨牽引登途仍焚其廬自強顧瞻
 烟光呼天擗地力排還歸伏塚三日不起姻戚感其
 孝誠爲復結廬以與之自強又居三年如初

詩鬢年父逝奉慈闈順色承顏罔或違喪盡禮儀
 仍合葬守墳三載淚渾衣 終喪復爲父居廬苦
 被姻親強引裾顧視烟光號擗地至誠能感得如
 初

김자강은 본도성주사람이니 어려아비죽고

어미를 섬기되 晝을 승순하여 그릇을 미어 업더니
 어머니 죽으매 부도 등의 법이라 를 쓰디 아니하고 혼졸코
 티가 레를 조차 그 아버와 합장하고 삼년을 녀묘
 하여 거상을 모치매 또 아버를 위하여 삼년을 다
 시이시려 할거늘 처족들이 잇글고 길로 나가인
 하여 그녀막을 불지르니 조강이 닛빛출브라 보
 고 하늘을 부르며 싸흘두드리며 힘써 물니치고
 도로가 무덤알픽사흘을 업디여 니디 아니하니
 처족들이 그 효성을 감동하여 다시 녀막을 지어
 주니 조강이 또 삼년을 이시되 처음조더라

石珍斷指 朝本



俞石珍高山縣吏也父天乙得惡疾每日一發發則氣絕人不忍見石珍日夜侍側無懈號泣于天廣求醫藥人言生人之骨和血而飲則可愈石珍即斷左手無名指依言以進其病即瘳

詩父患沉痾久未痊兒心悶絕叫蒼天誰知一粒靈丹劑却在無名指細研 父子天倫萬古同奈隨王化有汗隆觀圖每向高風挹藉甚名聲永不窮

유석진은 본묘고산현아전이니 아버련을이 악질을어더미일에병이발하야괴절하니사람

이태마보디못하느니라석단이듀야로것히외
셔하늘고브르지디며두로의약을구하니사람
이날오디산사름의씨물피에섯거먹으면가히
나으리라흔대석단이즉시왼손무명지를손히
그말대로하어나오니병이즉시나으니라

五倫行實圖
殷保感烏朝



尹殷保徐隲知禮縣人俱學於同縣知宜州事張志道一日相謂曰人生於三事之如一况吾師無子可養乎得異味輒饋每遇良辰必具酒饌如事父然張歿二人請廬墓於其親親憐而聽之乃玄冠腰經居墓傍躬爨供奠尹父嘗病卽歸奉藥衣不解帶父愈令復歸廬月餘尹感異夢亟歸則父果以夢夕疾作未旬而死尹晨夕號哭不離喪側旣葬廬父墳一日飄風暴起失案上香盒數月有烏銜物飛來置塋前人就視之卽所失香盒也至朔望猶奠張墳徐亦終三年宣德壬子事聞殷保隲並命旌門拜官

詩孔門廬墓載遺編師道千年廢不傳誰料窮鄉
初學輩種楷腰經企前賢 一體而分性本眞夢
驚親瘠氣通神慈烏反哺能相感香盒銜來慰棘
人

윤은보와셔즐은 본도지례현사름이니훈가
저로그고을사름장지도의게글비호더디훈는
서로닐오디스승은부모와훈가지니훈를며우
리스승이주식이업소디라훈고도훈음식을어
드면스승을먹이고명일을만나면쥬찬을마초
아아비섬기듯훈더니장지되죽으매두사름이

그어버이게녀묘호를청훈대어버이어옛비너
겨허하니이에제복으로스승의묘측에이셔몸
소밥지어제련을बाट드러니은퇴아비병들매즉
시도라와탕약을बाट드러오시셔물그르디아니
훈고아비병이나은매은보로훈여곰다시너막
의도라갓더니월여의은퇴고이훈숨을쉬고썰
리도라오니아비과연숨쉬던날로병이들엇는
디라열흘이못훈여죽으니은퇴도석으로호곡
훈고상축을셔나디아니훈고장후의아비무덤
의녀막훈시훈는급훈보람이니러나상우희향

합을일히터더니수월만이가마귀머어슬물고나
라와무덤알피두거늘사름이가보니일히터던향
합이러라삭망이면오히려스승의무덤의제하
고셔즐도또흔게셔삼년을막치니선덕 명선종황
데대년호
라 임주에 상이이일을드르시고두사름을다
정문하고버슬하이시다

五倫行實圖卷第一

五倫行實圖卷第二目錄

忠臣

龍逢諫死	欒成鬪死
石碣純臣	王蠋絕脰
紀信誑楚	蘇武杖節
朱雲折檻	龔勝推印
李業授命	嵇紹衛帝
卞門忠孝	桓彝致死
顏袁罵賊	張許死守
張興鋸死	秀實奪笏

演芬快死

若水効死

劉韜捐生

傅察植立

邦父書襟

岳飛涅背

尹穀赴池

天祥不屈

枋得不食

和尚噴血

絳山葬君

蝦蟆自焚

普顏全忠

堤上忠烈

不寧突陣

鄭李上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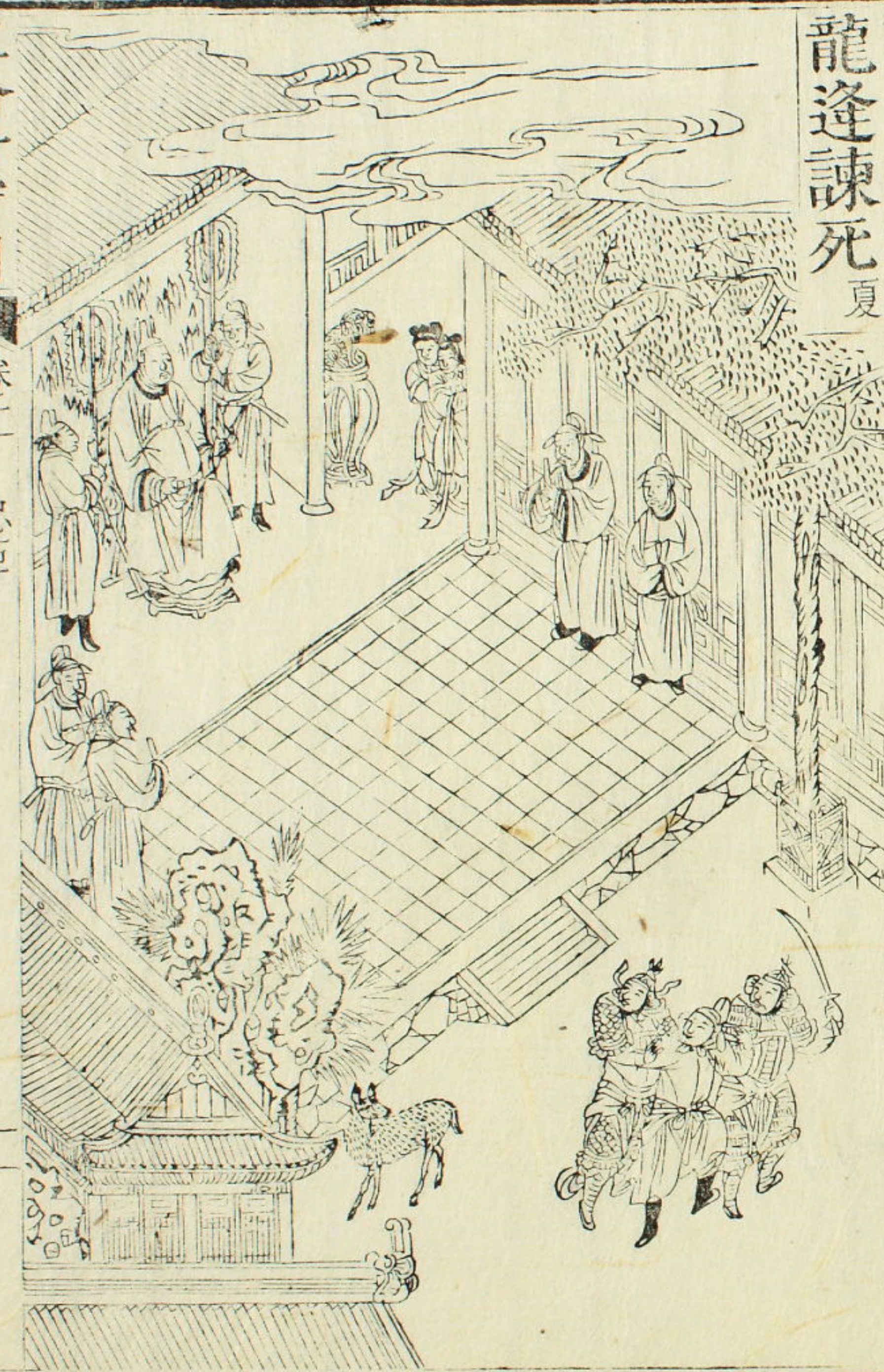
夢周殞命

吉再抗節

原桂陷陣

龍逢諫死

夏



五倫行實圖
桀鑿池爲夜宮男女雜處三旬不朝關龍逢諫曰人君謙恭敬信節用愛人故天下安而社稷宗廟固今君用財若無窮殺人若不勝民惟恐君之後亡矣人心已去天命不祐蓋少悛乎不聽龍逢立不去桀殺龍逢

詩夏桀荒淫毒下民弗親朝政至三旬輕生極諫言辭切得似龍逢有幾人 庭立陳辭冀小悛如何不聽殺忠賢民言曷喪真堪畏自道予生命在天

하나라님군걸이모슬푸며어두은짐을민들고

남네흔디이셔오리도회밧디아니흐니농방이
간흐여즐오디인군이검공흐고경신흐며지름
을절용흐고사름을스랑흐는고로런해평안흐
고샤직종묘를보전흐니이제군은지름쓰기
를궁진흐미업슬드시흐고사름죽이물밋처못
홀드시흐니빅성이오직군이더디망홀가두려
위흐는디라인심이비반흐고런명이돕디아니
흐거늘엇디쇼곰도긔치디아니흐니니잇가걸
이듯디아니흐거늘농방이셔고가디아니흐니
걸이농방을죽이니라

王倫行實圖
欒成鬪死
列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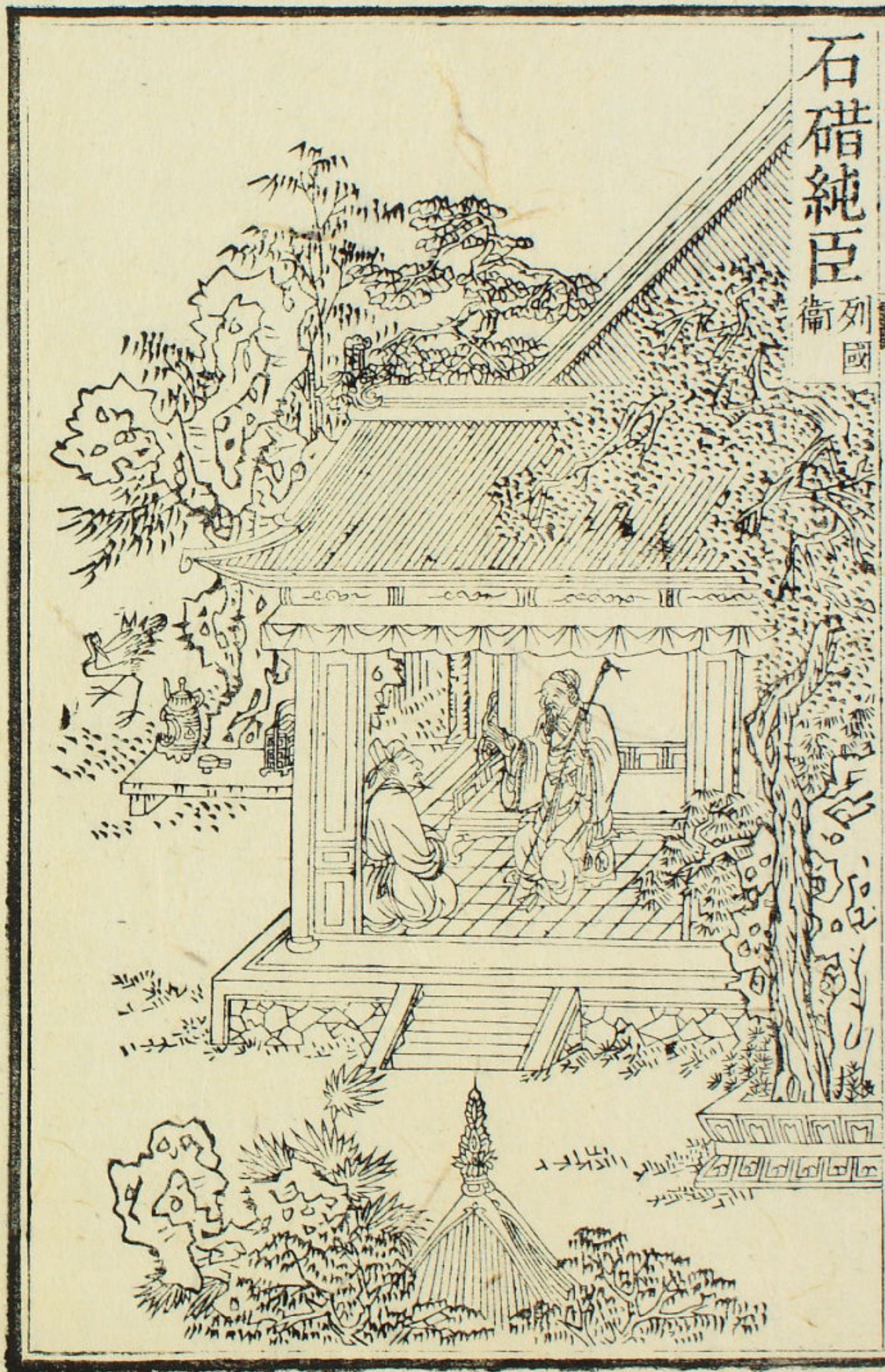


曲沃武公伐翼殺哀侯止欒共子曰無死吾以子爲
上卿制晉國之政辭曰成聞之民生於三事之如一
父生之師教之君食之非父不生非食不長非教不
知生之族也故一事之唯其所在則致死焉報生以
死報賜以力人之道也成敢以私利廢人之道遂鬪
而死

詩武公伐翼殺哀侯止死欒成待欲優縱受上卿
專國政其如不共戴天讎 君師自古生之族所
在唯應以死酬大義曾中曾識得肯將私利爲身
謀

던나라공옥무공의익사흘터이후를죽이고난
성을잡아닐오디죽디말라내널로써상경벼슬
을하야나라정스룰마음알게하리라성이스양
하야글오디나는드르니백성이세곳의사라섬
기물하곤곳티한다하니아비나흐시고스승이
마르치고남군이먹이시니아비아니면나디못
하교밥이아니면주라디못하교마르치디아니
면아름이업는고로하곤곳티섬겨죽기롤닐위
니니살오니는죽기로써감고주니는힘으로
써감흐미사름의도리라네엇디니로써사름의

도리롤페하리오하교드디여빠화죽이니라



衛州吁弑桓公而立未能和其民石碣子厚問定君於石碣碣曰王覲為可曰何以得覲曰陳桓公方有寵於王陳衛方睦若朝陳使請必可得也厚從州吁如陳碣使告于陳曰衛國褊小老夫耄矣無能為也此二人者實弑寡君敢即圖之陳人執之而請蒞于衛衛人使右宰醜蒞殺州吁于濮碣使其宰孺羊肩蒞殺厚于陳君子曰石碣純臣也惡州吁而厚與焉大義滅親其是之謂乎

詩家兒當賊致紛紜來問和民與定君國小無能身亦老勸令王覲是奇勳 陳人討賊是誰因老

子謀謨動四隣大義滅親如欲識請看青史記純
臣

위나라 주위 환공의첩 아들이라 환공을 죽이고 스스로셔니
빅성이 화티아니 하느니라 석작의 아들 휘작드
려 무려 곧 오디 엇디 하면 님 군을 덩하리 잇가 작
이 곧 오디 턴즈 피 뵈 오미가 하느니라 휘 곧 오디 엇
디 뵈어 더 뵈 오리 잇가 작이 곧 오디 진 환공이 뵈
야 흐로 련즈 피 통이 잇고 진과 위 또 화 목하느니 만
일 진 환공을 보고 청하면 가히 되리라 석 휘 주우
로 더 브러 진으로 갖더니 작이 사름으로 하 여곰

진에 고하 여 곧 오디 나라히 적고 내 능어 능히 흘
일이 업느니라 이 두 사름이 실로 우리 님 군을 죽
여 시니 청컨대 죽시도 모하라 진 환공이 주우와
석 후를 잡아 위 사름드려 와 죽이라 하대 위인이
우지 비슬이라 취를 보내여 주우를 죽이고 석작이 또
가신을 보내여 그 아들 후를 죽이니 군지 곧 오디
석작은 통순흔신해라 주우를 미워 할시 아들
참에 하느니 큰 의로지 친을 멸하느니 든 석작을 나
르미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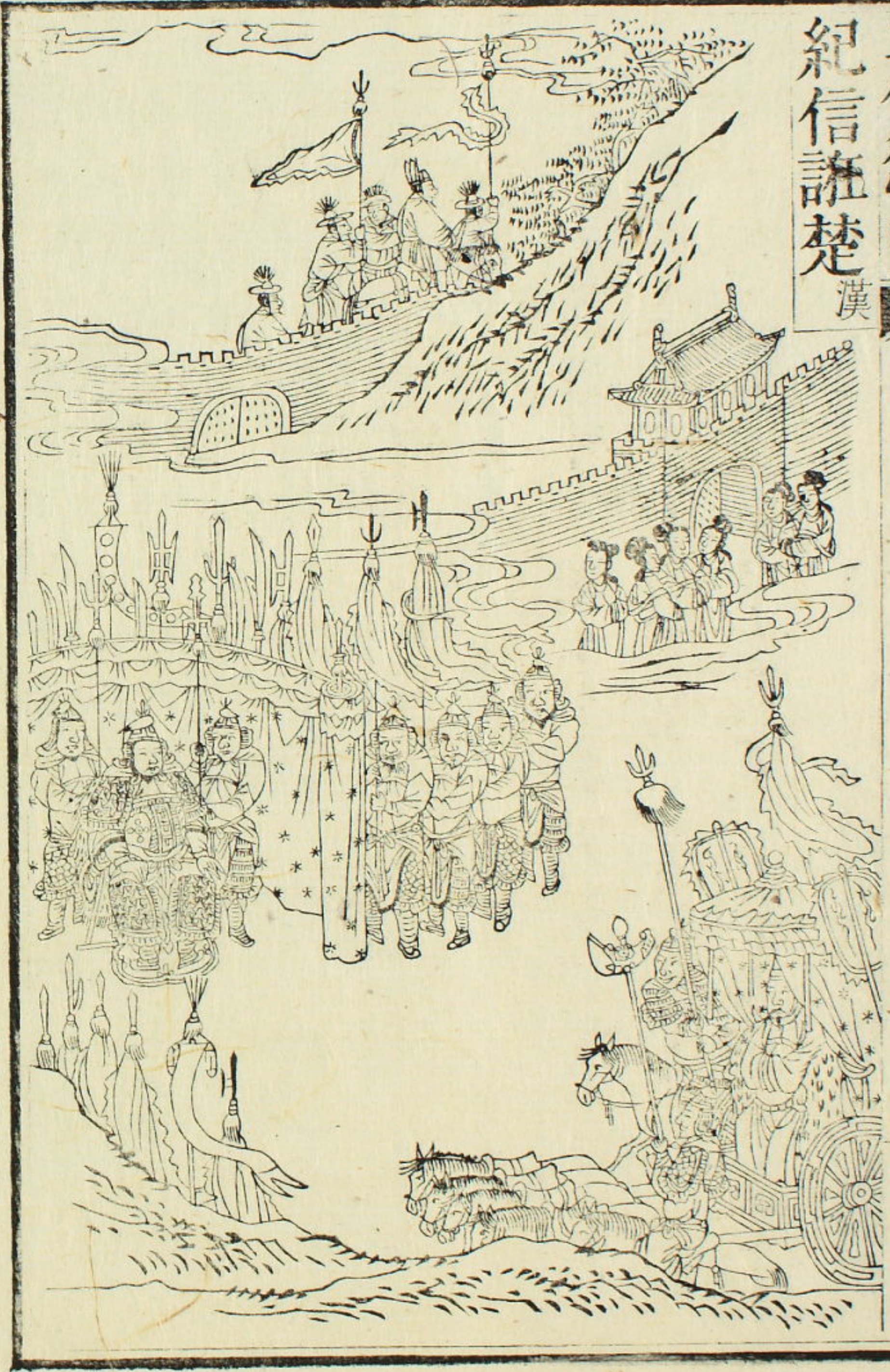


燕樂毅破齊聞畫邑人王蠋賢令軍中環畫邑三十里無入使人請蠋蠋謝不往燕人曰不來吾屠畫邑蠋曰忠臣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齊王不用吾諫故退而耕於野國破君亡吾不能存而又欲劫之以兵吾與其不義而生不若死遂經其頸於樹枝自奮絕脰而死

詩燕人圍畫欲屠城節士安能枉已行不事二君
 當日語凜然千載樹風聲 君亡國破不能存非
 義而生豈足論經死樹間方自慊千秋地下作忠
 魂

연나라 양슈악의 제나라를 파하고 회읍사름왕
축의 어딜물듯고 군중에 녕하여 회읍삼십리물
침노티말라하고 사름으로 하여곰 축을 청후대
축이 샐레하고 가디 아니하니 연사름이 곧 오디
오디 아니하면 회읍을 못디르리라 축이 곧 오디
릉신은 두님군을 섬기디 아니하고 녕녀는 두지
아비를 못치디 아니하니 제왕이 내간하는 말
을 쓰디 아니하고 로물러와 들히 밧가 더니 나라
히 파하고 님군이 망하여 시니 내능히 보존케 못
하고 또 군수로 협박하고 쳐하니 내그 불의코 살

므론 처르리 죽음만 못디 못하다하고 그 목을 남
게 돌고 스스로 느려디니 목이 썩쳐 죽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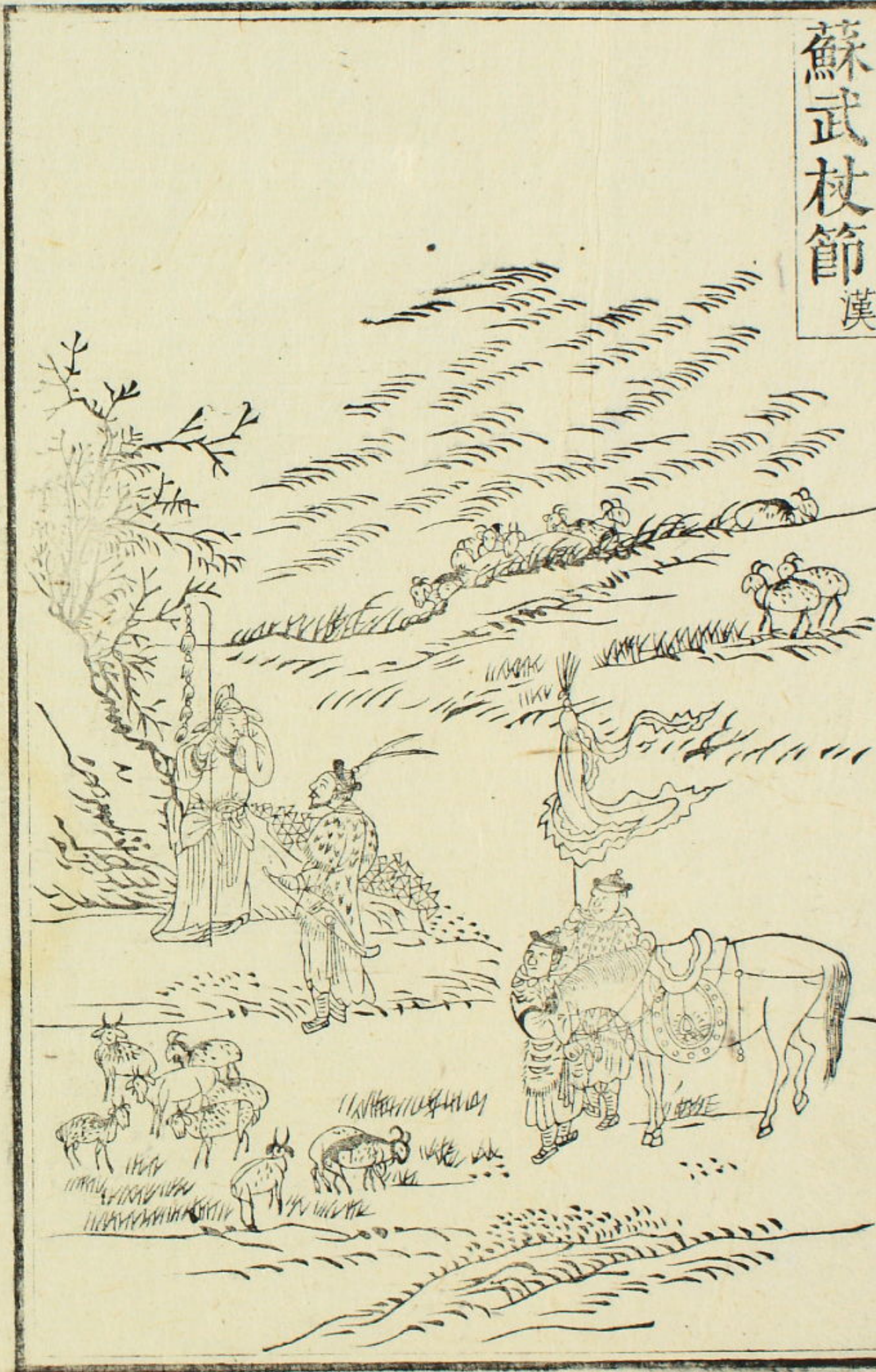


紀信漢將項羽圍滎陽漢王請和割滎陽以西為漢
 范增勸羽急攻滎陽王患之信曰事急矣臣請誑楚
 王可以間出於是陳平夜出女子滎陽東門二千餘
 人楚因四面擊之信乃乘王車黃屋左纛曰城中食
 盡漢王降楚楚皆呼萬歲之城東觀以故王得與數
 十騎從西門出走成臯羽燒殺信

詩漢王當日被重圍事急何人解指麾不有將軍
 謀誑楚陳平雖智計無施 攀龍附鳳幾英雄黃
 屋生降為沛公帝業縣縣基此舉蕭何不是漢元
 功

과신은한나라당쉬니항위형양을에위배거늘
 한왕이싸흔베허화친을청하니범증이항우를
 권하여형양을급히티라하거늘왕이근심흔시
 과신이곧오디일이급흔디라신이청컨대초를
 소길거시니왕은스이길로드라나쇼셔하교이
 에진평이밤에겨집이천여인을동문으로내여
 보내여빠흔하려하논레하니초나라군사스면
 으로서거늘신이이에왕의술위를드고황옥좌
 독^{남군의 위이라}으로나와곧오디성동의군량이진하여
 한왕이초의항복하노라흔대초군이다만세를

부르고성동문으로가보거늘그스이에왕이수
 십기를거느리고셔문으로나성고로도드라나니
 항위과신을물에슬와죽이니라



蘇武杜陵人以中郎將使匈奴會虞常謀殺衛律單于使律治之常引武副張勝知謀召武受辭武引刀自刺律驚自抱持武氣絕半日復息律謂武曰副有罪當相坐武曰本無謀又非親屬何謂相坐復舉劔擬之武不動乃幽武大窖中絕不飲食武齧雪與旃毛并咽之徙北海上使牧羝曰羝乳乃得歸武掘野鼠去草實而食杖漢節牧羊臥起操持節旄盡落單于使李陵置酒謂曰足下兄弟皆坐事自殺大夫人已不幸婦亦更嫁人生如朝露何自苦如此武曰臣事君猶子事父子為父死無所恨願勿復言陵與飲

數日復曰一聽陵言武曰自分已死人矣必欲降請
効死於前陵見其至誠歎曰嗟乎義士陵與衛律罪
通于天因泣下與武決去始元六年武始得還

詩初承帝命使匈奴那料荒陲苦被拘強引受辭
終不屈堪嗟自刺絕還蘇 牧羝掘鼠歷多艱杖
節持旄意尙閑不聽陵言期効死安知後日得生
還

소무는 한나라 두릉 사람이니 등낭양 벼솔로써

흉노 북방요랑
개칭화라 에 소신갓더니 마침우상이 위를 상우

위를은 다 한나라 사람이
로 흉노에 항복한 재라 을 죽이려하다가 발각하여 매선

위 흉노왕
이라 위를로 하여곰 사희라 하니 우상이 소

무의부스 양승을 다히대를이 무를 불러 토스를

바드니 위갈을 싸혀스스로 먹디르니 위를이 놀

나붓들고 말린대 위반일을 괴절하였다가 다시

셔거늘를이 무드러닐러온오디부스의 죄로맛

당이년좌하리라 위곤오디본디모계업고또내

친속이아니어늘엇디하여년좌하리오를이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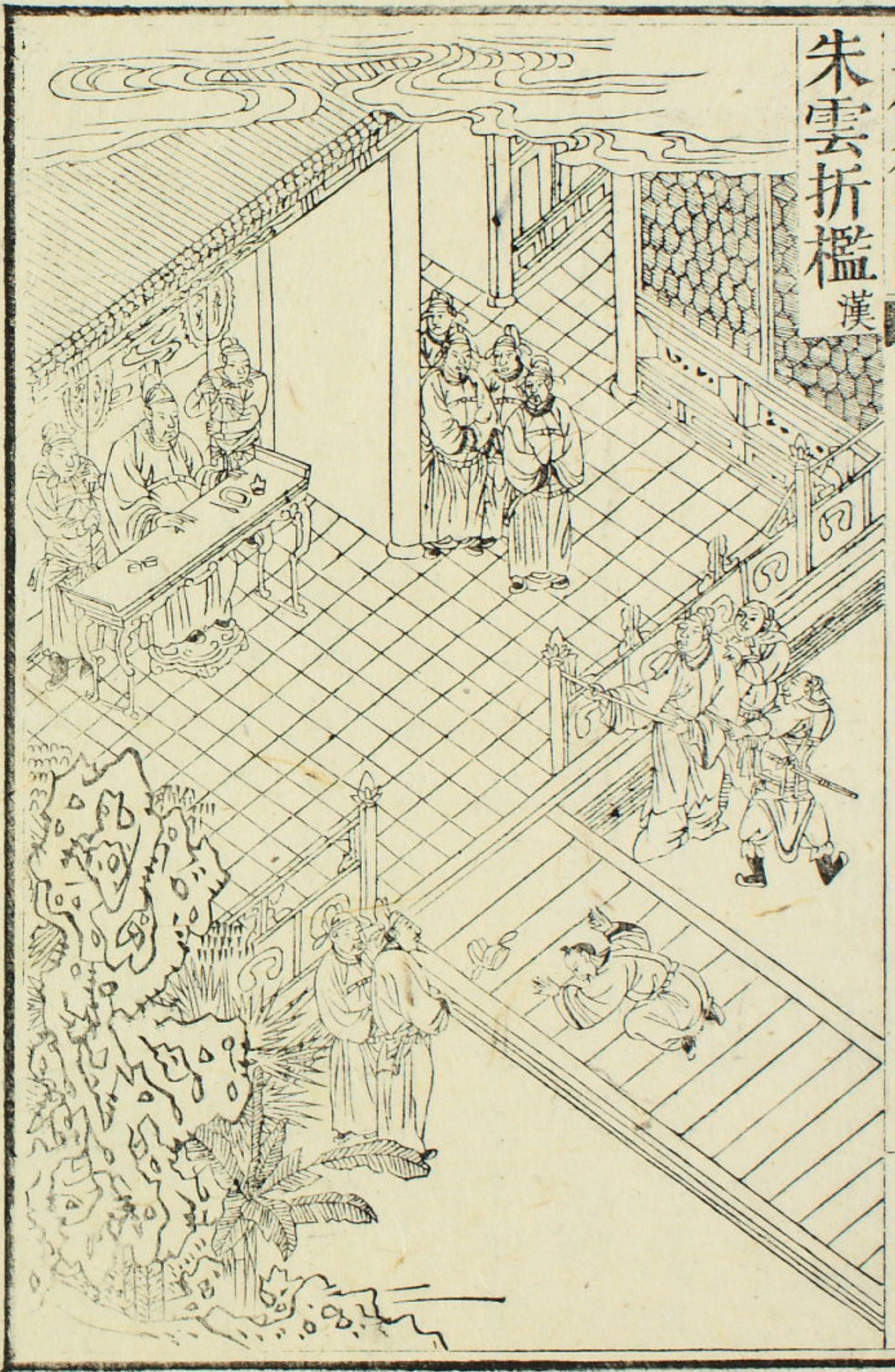
을드러죽이려하되 위요동티아니하니 위는과과

에 무를디 함에가도고음식을은하니 위는과과

에 들닌털을섯거삼키더니 다시 북히우히오며

두고 하 여곰 수양을 먹이 고 수양이 샅기 쳐야 노
하보내리 라 하 니 뒤먹을 거 시 업서 들에 쥐곰 클
과 쥐 먹 던 플 열미 들 먹고 한 나 라 절을 잡아 누으
나 안 주 나 노 티 아 니 하 니 절 외 다 썩 러 디 더 라 선
위 니 등 등은 한 나 라 당 슈로
흥 노 의 항 복 호 재 라 으 로 하 여곰 술 을 가 지 고
무 를 다 래 여 널 오 디 그 디 형 테 다 죄 에 죽 고 대 부
인 도 이 의 불 흥 하 고 안 히 도 노 흥 키 가 흥 었 는 디
라 인 성 이 아 침 이 술 마 트 니 었 디 구 투 여 이 러 트
시 괴 롭 게 하 느 뇨 뒤 곧 오 디 신 해 님 군 을 섬 기 매
즈 식 이 아 비 섬 김 마 트 니 즈 식 이 아 비 를 위 하 여

죽 어 도 흥 흥 배 업 니 원 권 대 다 시 이 런 말 을 말
라 등 이 흥 가 지 로 두 어 날 술 먹 다 가 다 시 널 오 디
흥 번 내 말 을 드 러 라 뒤 곧 오 디 이 의 죽 기 를 결 단
하 여 시 니 반 드 시 항 복 바 토 겨 하 거 든 청 권 대 알
피 셔 죽 으 리 라 등 이 그 지 성 을 보 고 탄 식 하 여 곧
오 디 슬 프 다 의 스 여 등 과 위 들 은 죄 하 늘 에 다 하
도 다 흥 고 인 하 여 눈 물 을 흘 니 고 무 로 더 브 러 니
별 흥 고 갓 더 니 시 원 한 쇼 테 매
년 호 라 녹 년 에 위 비 로 소 도
라 오 니 라



朱雲平陵人張禹以天子師國家大政必與定議時吏民多言災異王氏專政所致成帝然之乃至禹第問以天變因用吏民言王氏事示禹禹自見年老子孫弱又與王根不平恐為所怨謂上曰災變之意深遠難見陛下宜修政事以善應之新學小生亂道誤人宜無信用上雅信禹由是不疑雲求見曰朝廷大臣皆尸位素餐願賜斬馬劍斷佞臣一人頭以厲其餘上問誰對曰張禹上大怒曰小臣廷辱師傅罪死不赦御史將雲下雲攀殿檻折呼曰臣得從龍逢比干遊足矣御史遂將雲去將軍辛慶忌免冠叩頭流

血爭上意解得已後當治檻上曰勿易因而輯之以
旌直臣

詩災異雖云降自天實由王氏久專權奈何張禹
依阿甚廷辱當時氣凜然 誠心請斷佞人頭擬
與逢干地下遊治檻異時令勿易是知端爲直臣
雷

쥬운은한나라평능사롭이니쟝위련조소부로
이셔국가의큰일은련지미양우로더브리의논
하더니이쇄에지변이만흐니사롭이다닐오디
왕시 성례의
척이라 권을잡은연피라하니황테그러히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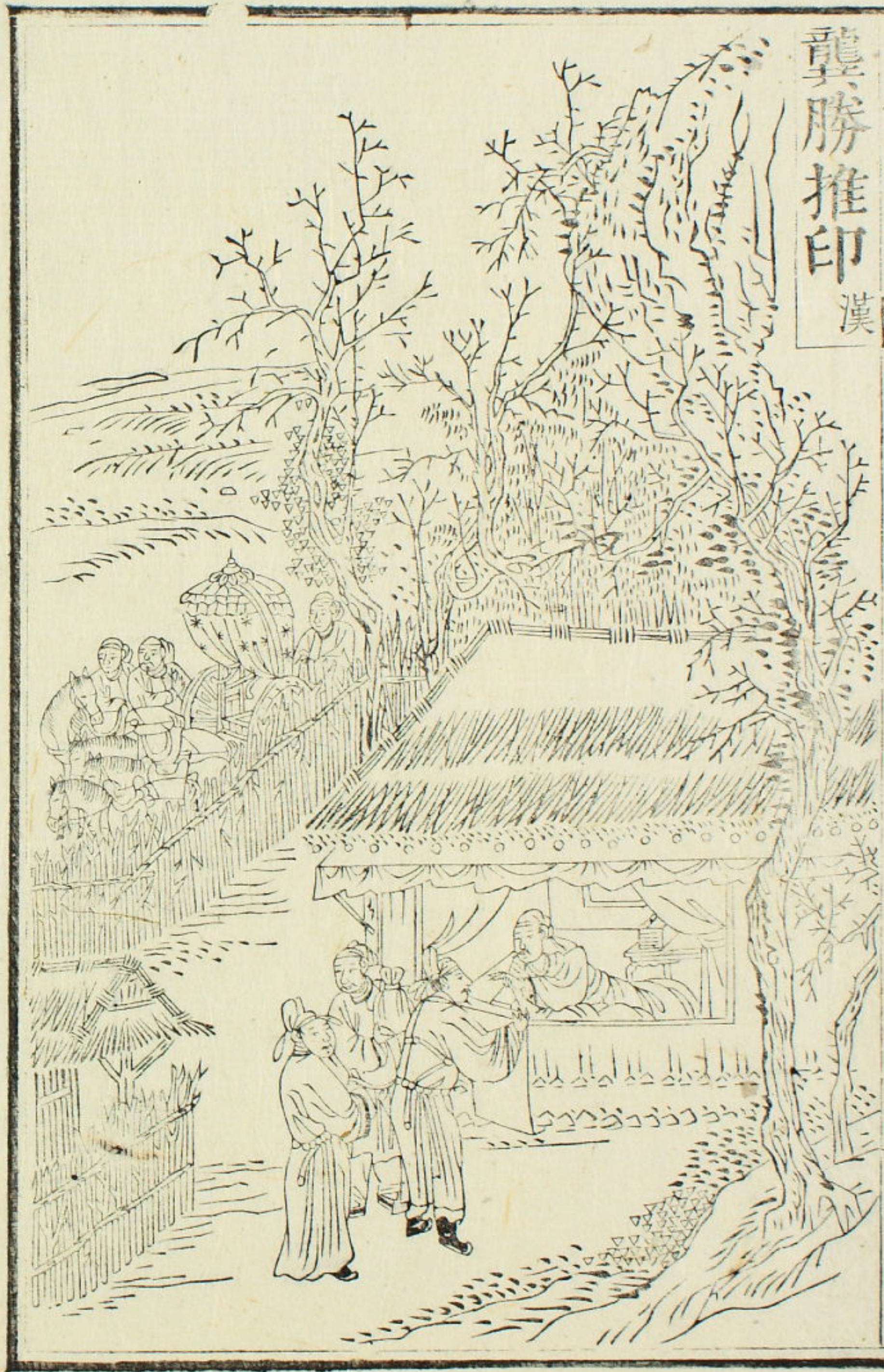
기샤쟝우의집에가련변을무르시고인하야왕
시의논하논말을니르시니위스스로싱각호디
나히높고조손이약하니왕시와결원훈가두려
위하야상괴엿조오디지변되논쓰디갑고머러
알기어려온디라폐하는맛당이정스룰닷가어
딘일로응하실디니저문선비들이어즈러이말
하야사름을그릇되게하느니밋디마르쇼셔호
대상이본디쟝우를미드시논디라이러므로의
심티아니하시니쥬운이련조괴뵈와존오디도
형대신이다죽만먹고제딕척을출히디못호오

五倫行實圖
니원컨대참마검을주셔든호아당호는신하의
마리롤버혀다른사름을딩게호리이다상이무
르시디놀을니른말인다디호여곧오디장우로
소이다상이대노호여곧으샤디서근신해네스
승을욕호니그죄죽여샤티못호리라어시운을
잡아니리거놀운이대철난간을잡으니난간이
부러디논디라운이크게소리호여곧오디신이
농방비간을조차놀미족호도소이다어시디
여운을잡아가니장군신경기관을벗고마리를
두드러피호르도록드톤대상의쓰디져기플니

샤운의죄롤샤호고후에그난간을코칠시상이
곧으샤디밧고디말고인호여곳쳐디신을표호
라호시다

龔勝推印

漢



龔勝楚郡人仕漢爲光祿大夫以王莽秉政乞骸骨歸鄉莽旣篡位遣使奉璽書太子師友祭酒印綬安車駟馬迎勝卽拜使者與郡縣長吏入里致詔使者欲令勝起迎久立門外勝稱病篤使者致詔付璽書進曰聖朝制作未定待君爲政勝曰素愚加以老病命在朝夕隨使上道必死道路使者要說以印綬加身勝輒推不受使者爲勝兩子及門人高暉等言朝廷虛心待君以茅土之封雖疾病宜移至傳舍亦有行意必爲子孫遺大業暉等白之勝曰吾受漢家厚恩無以報今年老朝暮入地諒豈以一身事二姓下

見故主哉因敕棺斂喪事語畢遂不復飲食積十四日死年七十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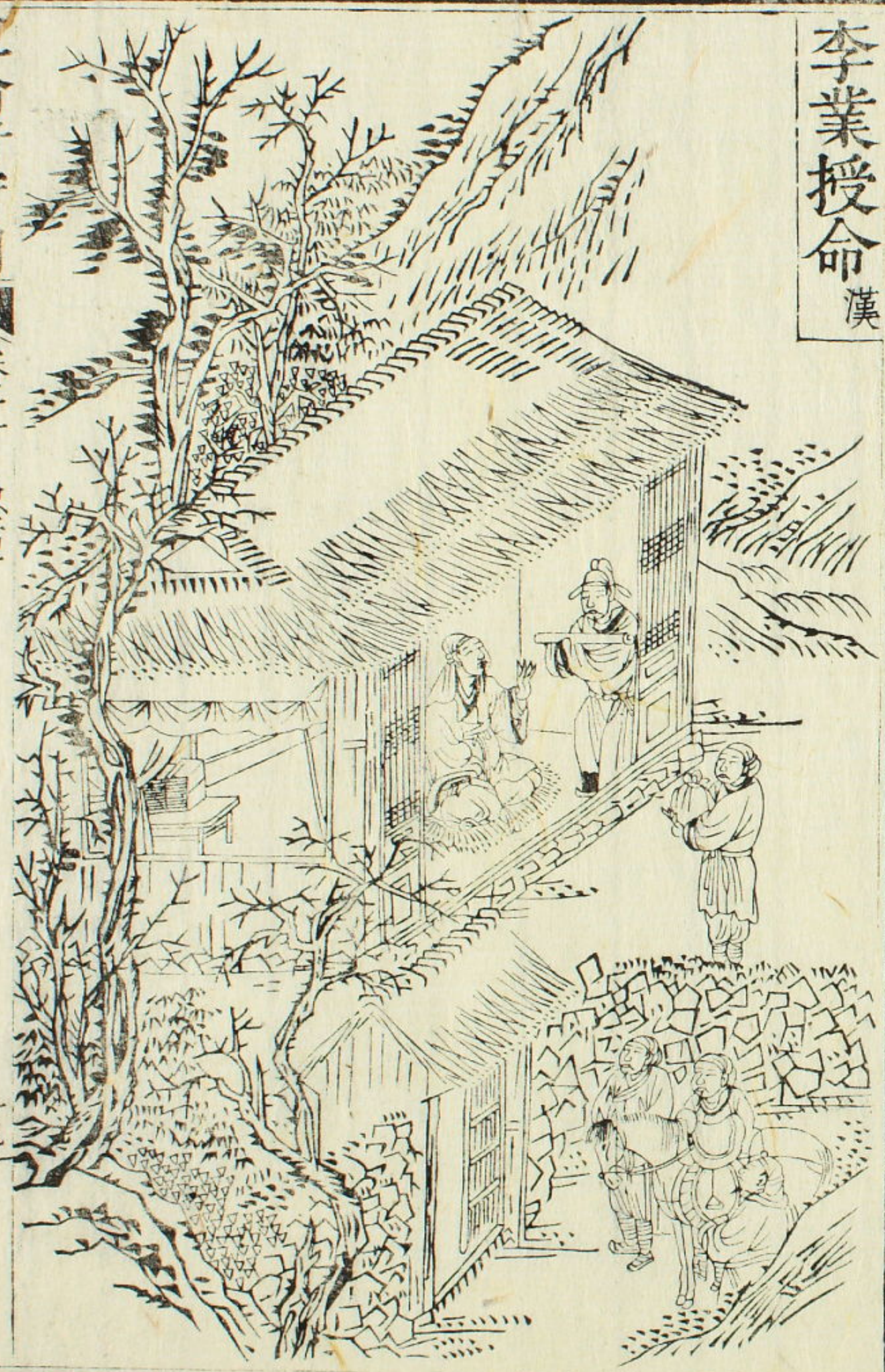
詩新室方興國柄移乞歸鄉里是其宜竟稱病篤無行意何用安車駟馬爲身加印綬禮雖勤臣子何心事二君絕粒旬餘仍不起聞風孰不挹清芬

공승은한나라초군사름이니벼슬하여광녹태우에니르러터니왕망이정스를잡으니벼슬을버리고고향의도라갓터니망이찬역하여매스자를보내여시셔_{도세}와태즈스우재쥬벼슬인슈

를밧들고거마를초와승을마줄시스재군현장니_{라원}이로터브러승의집의가도셔를전홀시스재승으로하여곰나와맛고져하여오래문밧괴셔시니승이병들물일것고나오디아니하니스재명을전하고시셔를밧져온오디도령제도를당리못하여그디를기드리는나라승이온오디내높고병드러명이도석에이시니스재를조차가다가반드시길히셔죽으리라스재인을가져승의몸의더하니승이밀치고밧디아니하니늘스재승의아들과문인들드러닐오디도령이

口음을기우려기드리는니맛당이봉후에귀하
미이시리니비록질병이이시나잠간직사에올
마헿헿뜻을뵈면반드시조손의게큰업을세치
리라문인등이이말을승의게고하니승이곧오
디내한나라후은을넘어감흐미업고이제나히
늘어도모의죽을디라엇디호몸으로두님군을
섬기고디하의가뵈님군을보리오호고인하
상스제구를출히라호고밥먹디아니하
흘만의죽으니나히철십구세러라

李業授命 漢



李業梓潼人元始中舉明經除爲郎王莽居攝以病去官隱藏山谷終莽之世公孫述僭號素聞業賢徵之欲以爲博士業固疾不起述使尹融持毒酒奉詔以劫若起則受公侯之位不起賜之以藥融譬旨曰方今天下分崩孰知是非朝廷貪慕名德曠官缺位宜上奉知己下爲子孫身名俱全不亦優乎今數年不起猜疑寇心凶禍立加非計之得者也業乃歎曰危國不入亂國不居親於其身爲不善者義所不從君子見危授命何乃誘以高位重餌哉融見業不屈曰宜呼室家計之業曰丈夫斷之於心久矣何妻子

之爲遂飲毒而死

詩明經應舉擅才名漢室除郎亦至榮告疾休官終莽世公孫豈得餌公卿 天下分崩孰是非尹融譬旨適貽譏丈夫固自由心斷妻子焉能授指揮

니업은한나라지동사름이니원시 한평테대
년호라 등에
명경과거하여낭벼슬을하엿더니왕망이찬역
하매업이벼슬을버리고산중에숨엇더니왕망
이망후후에공손술이촉을응거하여황테로라
일곳고업의어덜을듣고블러박스벼슬을하이

려하니 업이 병을 일컷고 니다아니하니 술이 소
쟈를 보내여 독약을 가져 겁박하여 곧오디오면
공후에 위를 바들거시오오디아니하면 독약을
먹이리라하고 소재또다래여 곧오디이제련해
어즈러오니 뒤시비를 알리오도령이그디일흠
과덕을스모하여 벼슬노그디를기느리니맛당
이우흐로지기를 밧들고 아래로즈손을위하여
신명이완전하면또하아름답디아니하랴그디
이제수년을니다아니하니도령이식귀하고의
심하여 흥화반드시니르리니이느니하계피아

니나라업이탄식하여 곧오디위티하나라하느
드러가디아니하고어즈러온나라하느사디아
니하다하느니내엇디벼슬을탐하여블의를조
츠리오소재업이굴티아니하물보고곧오디맛
당이잡안사름과의논하여보라업이곧오디당
뷔口음의결단하연디오란디라엇디쳐저와새
하리오하고드디여독약을먹고죽으니라

五倫行實圖
嵇紹衛帝



嵇紹譙國人官侍中太弟穎僭侈日甚大失衆望司空東海王越等謀討之奉惠帝北征徵紹詣行在侍中秦準謂紹曰今日向難卿有佳馬乎紹正色曰臣子扈衛乘輿死生以之佳馬何爲穎遣石超帥衆五萬拒戰超軍奄至乘輿敗績於蕩陰帝傷頰中三矢百官侍御皆散紹朝服下馬登輦以身衛帝兵人引紹於轅中斫之帝曰忠臣也勿殺對曰奉太弟令惟不犯陛下一人耳遂殺紹血濺帝衣左右欲浣之帝曰此嵇侍中血勿浣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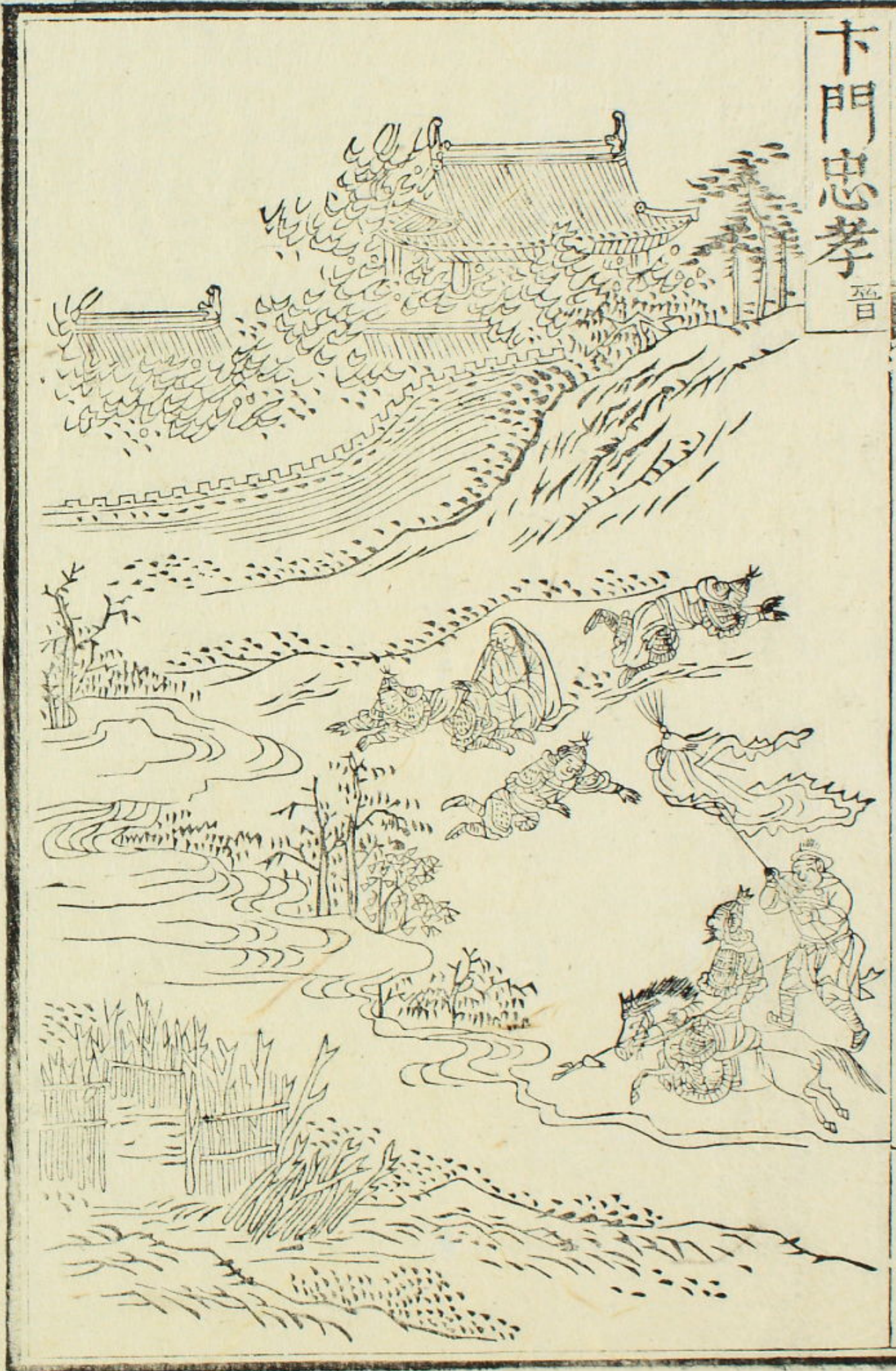
詩肅奉天威討亂臣肯論生死故逡巡蕩陰敗績

羣僚散獨被朝衣衛帝身 殺身終是要成仁千
古忠貞見一人血濺御衣仍勿浣按圖誰不爲酸
辛

히쇼논딘나라초국사름이니시등벼슬을흥였
더니이썬에태테영^{딘혜테}아이라이반역흥니모든신해
혜태를बाट드러영을틸시히쇠또흥님군을되섯
더니시등진준이쇼드러닐러곤오딕오늘난을
당흥니그딕도흥들이잇느야쇠팅식흥고곤오
딕신지스싱으로님군을호위홀디라도흥물을
무엇흥리오흥더라영이당슈를보내여마자빠

흥시영의군시불의에니르니황테대패흥여느
치세살을맛고빅판이다흐터디되쇠홀로도도복
으로물게느려황테트신술위에올라몸으로버
테를마리오니영의군시술위가온대셔쇼를잡
아내여벽으니테곤으샤딕이느통신이라죽이
디말라군시곤오딕태테의녕을바다시니폐하
흥사름만범티아니흥리이다흥고쇼를죽이니
피썬여테의오시젓더라후에좌위테의오슬셀
고져흥대테곤으샤딕히시등의피니썬디말라
흥시다

下門忠孝



下壺濟陰人官尚書令蘇峻舉兵反陷姑孰濟自橫
 江臺兵屢敗成帝詔壺都督大桁東諸軍及峻戰于
 西陵大敗峻攻青溪柵壺又拒擊峻因風縱火燒臺
 省諸營皆盡壺背癰新愈瘡猶未合力疾苦戰而死
 二子眡盱隨之亦赴敵死眡母撫二子尸哭曰父為
 忠臣汝為孝子夫何恨乎贈侍中驃騎將軍開府儀
 同三司諡曰忠貞祠以太牢

詩強臣跋扈濟橫江屢敗臺兵犯大邦新愈癰疽
 瘡未合傾身苦戰死無雙 一門忠孝兩能全二
 子賢名孰比肩贈諡褒崇祠太牢輝光青史至今

傳

변곤은 단나라 제음사름이니 상셔령 벼슬 하였
 더니 소준이 반하여 고숙사 흘함물하고 회강을
 건너니 도성군서 여러 번 패하거늘 띠지곤을 명
 하여 제군을 거느려 준으로 더 브러셔릉의셔 빠
 호다가 크게 패하고 또 청계척의셔 빠 흘시준이
 비람을 인하여 블을 노화되 성_{서울마}과_{을이라} 여러 영을
 다스르니 이새에 곤이 등창이 새로 나야 오히려
 낫디 못하였더니 병을 강잉하 여 힘빠 빠 호다가
 죽거늘 두 아들 진과 위적 진의드라 드려 함씨 죽

으니 진의 어미 두 아들의 죽음을 어긋문지며 우
 러 울오디 아비는 통신이 되고 너는 효제되니 모
 어 슬하하리 오나라 하시 동표귀 장군기부의 동
 삼스 벼슬을 류증하고 시 호하 여 곧 오디 통정이
 라 하고 태위로 제하니라



桓彝譙國人爲宣城內史蘇峻襲陷姑孰彝欲起兵
 赴朝長史裨惠以郡兵寡弱山民易擾宜且按甲以
 待彝厲色曰見無禮於其君者若鷹鷂之逐鳥雀今
 社稷危逼義無晏安乃遣將討賊別帥於蕪湖破之
 彝尋出石頭聞王師敗績慷慨流涕進屯涇縣惠又
 勸彝與峻通使以紓交至之禍彝曰吾受國厚恩義
 在致死焉能忍恥與醜逆通和如其不濟此則命也
 彝遣將軍俞縱守蘭石峻遣將韓晃攻之縱將敗左
 右勸退軍縱曰吾受桓侯厚恩當以死報吾之不可
 負桓侯猶桓侯之不負國也遂力戰而死晃遂進軍

城陷執彝殺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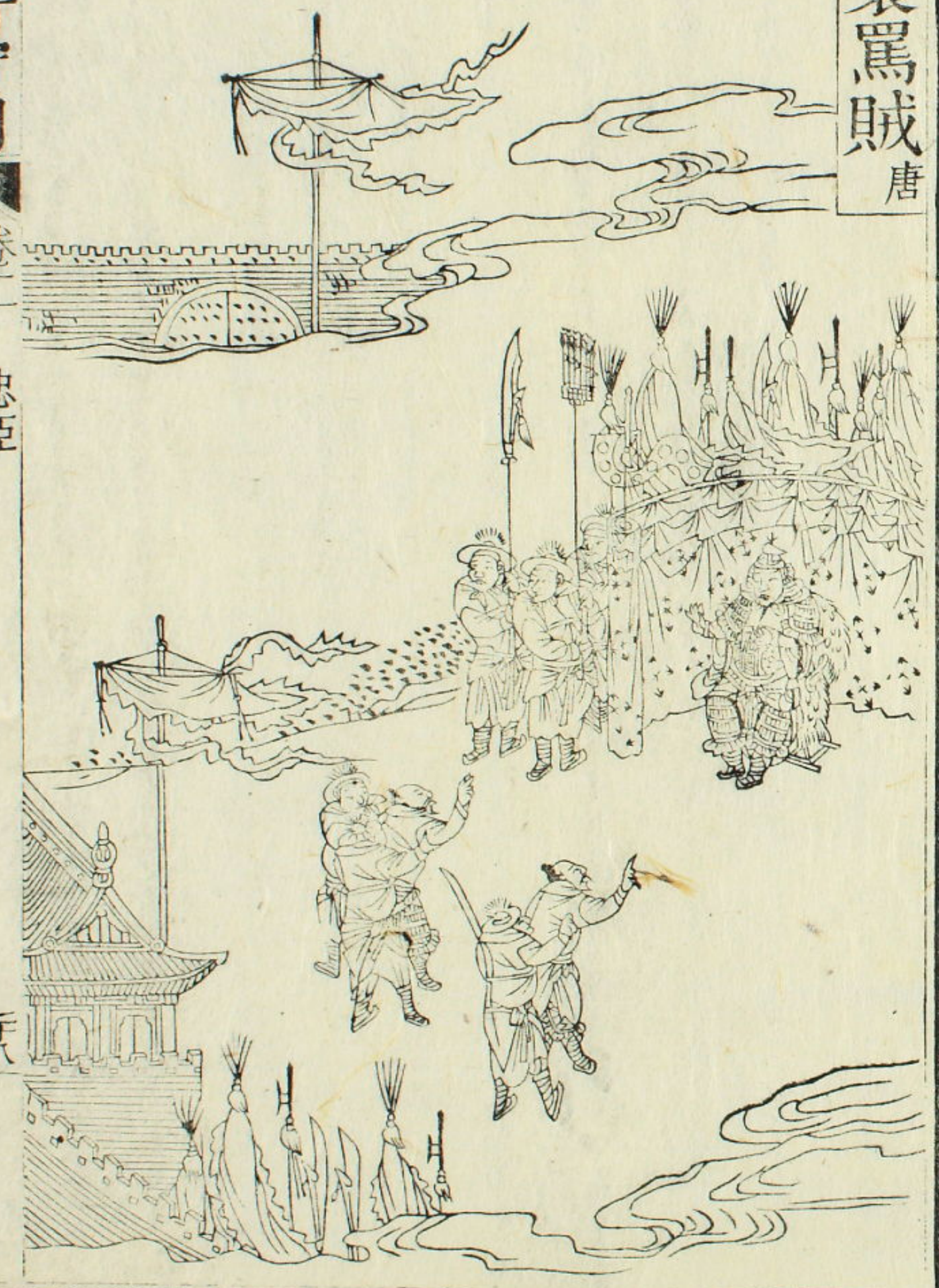
詩心期掃賊愧迤邐成敗曾將命付天俞縱感恩
終死報桓侯真箇以身先 賊勢強梁莫可接官
軍寡弱奈如何縱然死敵人臣分節義堅貞問幾
多

환이논딘나라초국사름이니선성너스벼슬을
하엿더니소준이고슈싸흘함몰하니환이군스
를니르혀도성을구원하려하니휘하사름이간
하여곧오디우리군서과약하고산군백성이요
동키쉬오니아직군스를머므러기드리라흔대

환이텅석하고곧오디님군기무레흔쟈를보거
든매가새를뵈듯하니이제샤직이위티흔를
보고엇디평안이안자시오하고이에당슈를
보내여적장을터무호에서과하고환이석두성
으로나오다가나라군서과흔를듯고강개하여
눈물을흘리며군스를나와경현싸히딘첫더니
혹이권하여소준으로더브리화친하라흔대환
이곧오디내국은을넘어시니의맛당이죽을디
라엇디붓그리오를차마역적과교통하리오비
록죽으나이또흔명이라하고쟈군유종을보내

여빠화소패하니 좌위종을권하. 여물러나라호
 대종이곧오디내 환공의듯터온은혜를넘어시
 니맛당이죽으므로갑흘디라내 환공을져브리
 디아니흐몬곳 환공의나라 흘쳐브리디아남
 트니라호고드디여빠화죽으니적장이군을나
 와성을파호고환이를잡아죽이다

顏哀罵賊 唐



顏杲卿瑯琊人蔭調遷范陽叅軍安祿山聞其名表為營田判官假常山太守祿山反杲卿力不能拒與長史袁履謙往迎之祿山賜杲卿紫袍杲卿途中指衣謂履謙曰何為著此履謙悟其意謀討祿山遂起兵守備未完祿山將史思明蔡希德引兵至城下杲卿晝夜拒戰糧盡矢竭城遂陷賊執杲卿履謙等送洛陽祿山數之曰我擢爾太守何負而反杲卿瞋目罵曰汝本營州牧羊羯奴天子擢汝為三道節度使恩幸無比何負於汝而反我世為唐臣雖為汝所奏豈從汝反邪我為國討賊恨不斬汝何謂反也臊羯

狗何不速殺我祿山大怒并履謙縛而劓之二人比死罵不絕口顏氏死者三十餘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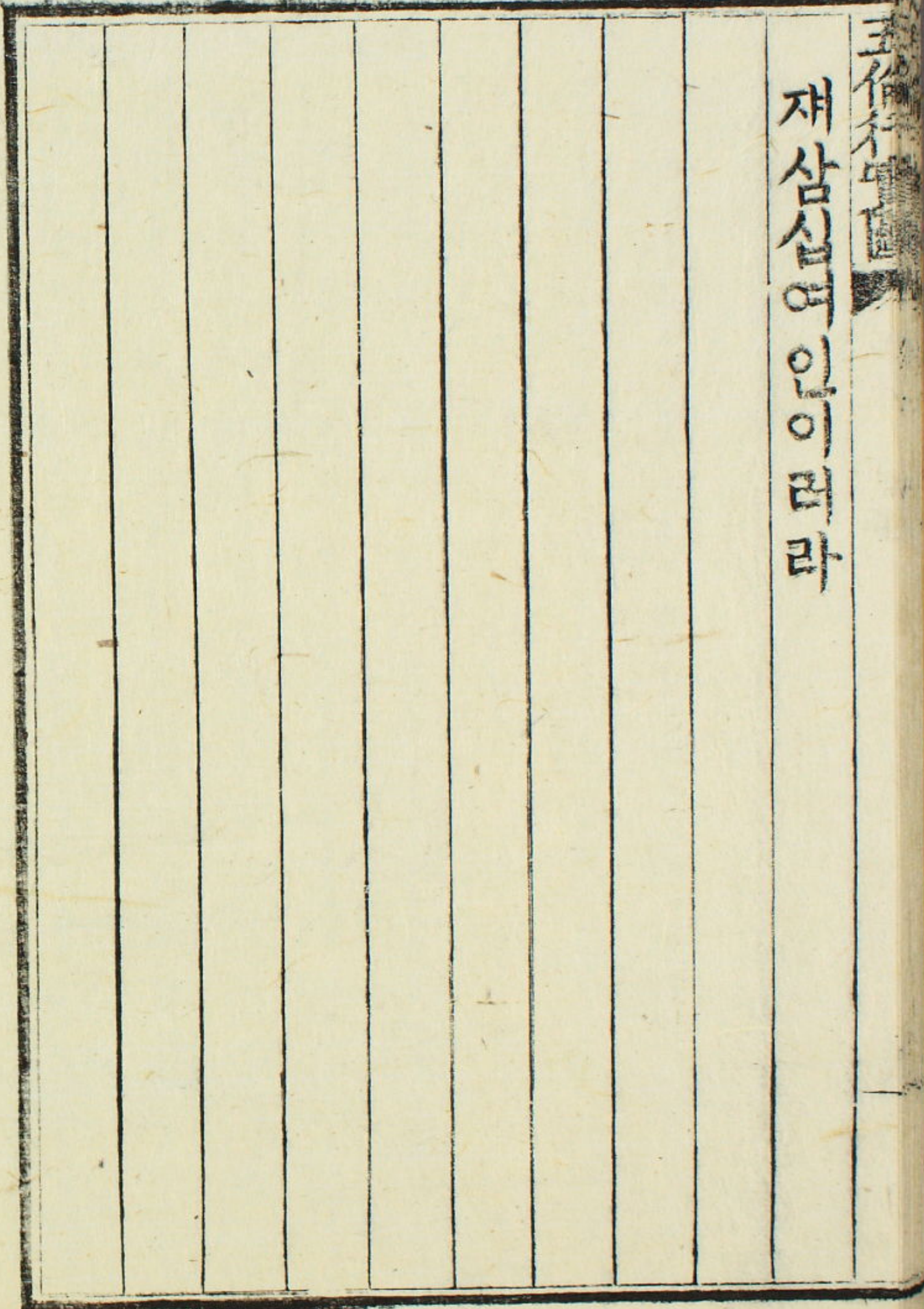
詩杲卿忠義上天知金紫光華志豈移賴有履謙能悟意同心報國任身危 欲討姦兇起義兵力窮城陷竟無成忠肝激烈剛猶罵青史昭垂不朽名

안고경은당나라낭야사람이니범양참군벼슬을하엿더니안녹산이그일홈을듯고도딩에쳐하여상산태슈를하엿더니녹산이반하매고경이능히막디못하여장소원니검으로터브리거

죽녹산을마즈니 녹산이불근오솔주거늘고경
이바다남교가다가둥노에셔오솔마르치며니
검드러닐러곧오디엇다하여이오솔님엇는노
니검이아라듯는디라드디여흔가지로써하여
군소를니르혀녹산을티려흔대녹산이당슈를
보내여성을티거늘고경이듀야로빠화냥식과
살이진하여성이함몰하니적쟙이고경파니검
을잡아녹산의게보내니녹산이수죄하여곧오
디내일즉너를천거하여벼슬을하엿거늘엇디
날을반하는다고경이눈을부릅뜨고쑥지저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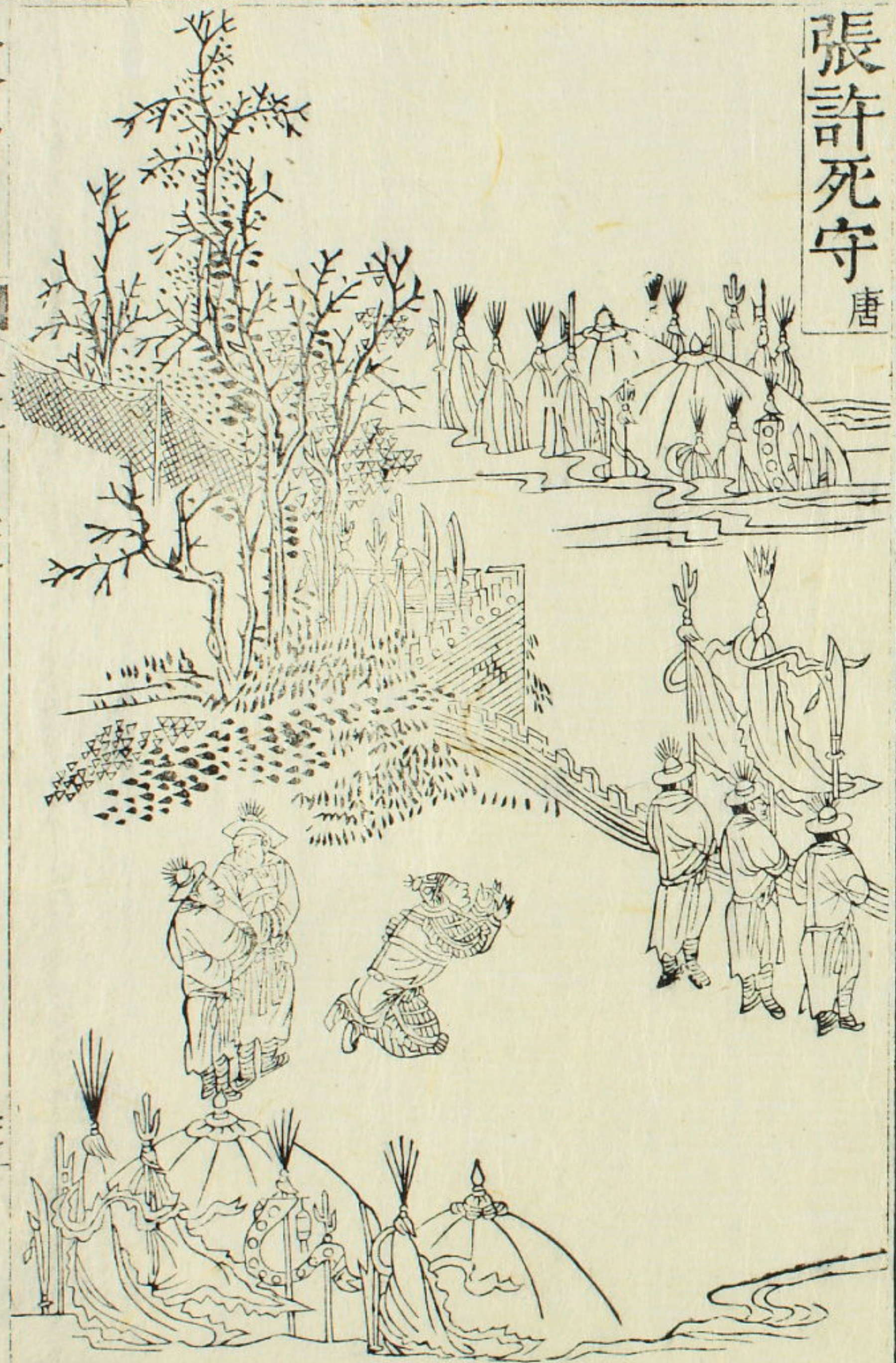
오디네본디영유에양먹이는오랑캐로턴지너
를삼도절도소를하이시고은통이비홀디업스
니네게무어슬져버렸관디반하는다나는디디
로당나라신해라비록네천거하배되나엇디너
를조차반하리오내나라흘위하여도적을티매
너를버히디못하줄을하하노니엇디하여날드
러반하다하는다비린내나는개마튼놈아썰리
날을죽이라하대녹산이대노하여고경파니검
을결박하여삭가죽이니두사람이죽기에너르
드록쑥짓기를그치디아니하고안시에절스하

재삼십여인이러라



張許死守

唐



張巡鄧州人許遠新城人祿山將尹子琦寇睢陽遠告急於巡巡自寧陵引兵入與遠晝夜苦戰一日或二十合遠謂巡曰遠請為公守公為遠戰子琦復徵兵數萬城中食盡人廩米日一合雜以茶紙樹皮議棄城東走巡遠謀曰睢陽江淮之保障若棄去賊必乘勝長驅是無江淮也且我眾饑羸走必不達不如堅守茶紙既盡遂食馬馬盡羅雀掘鼠巡殺其所愛妾以饗士賊登城將士病不能戰巡西向拜曰臣力竭矣生既無以報死當為厲鬼以殺賊城陷巡被執子琦曰聞公督戰大呼輒眦裂血面嚼齒皆碎何至

是巡曰吾欲氣吞逆賊顧力屈耳子琦怒以刀抉其口巡罵曰我為君父死爾附賊乃犬彘也賊以刃脅降終不屈并南霽雲雷萬春等皆被害生致遠於洛陽至偃師亦不屈死

詩賊寇睢陽勢甚張將軍戰守保危亡城中食盡飢羸極西向陳辭出肺腸 二公忠膽自相符壯節巍巍烈丈夫欲保江淮同固守力窮城陷竟捐軀

장순은당나라등유사람이오허원은신성사람이니안녹산의당슈윤조기슈양고을을티거늘

이새원이 슈양을 딛힌디라 장순의 게구원호를
청호대순이 군수를 거느려 슈양성등의 드러허
원으로 더 브러도적을 막을 서 두야로 힘써 화
호로 수십함을 싸호니 성등의 양식이 진호야 날
마다 달호흡과 차뵈던 도희와 나무거플을 씻거
먹는 더라 흑이 권호야 성을 버리고 드라 나라 호
대 두사람이 곧 오더 슈양은 강회에 등호싸히니
슈양을 버리면 도적이 반드시 이 괴를 인호여 기
리 모라 드려 올 거시니 이러면 강회를 다 버리미
오노 우리 군서 주리고 병드니 엿디 드르 리 오호

고곳이 덕희나 먹을 거시 진호 매물을 잡으며 물
이 진호 매새와 쥐를 잡아 먹다가 순이 그 수랑호
노첩을 죽여 군수를 먹이고 통의로써 수졸을 겨
동호니 호나 토반호 쓰지 업더라 도적이 급히 티
니 당시 다 병들어 빠호디 못호노 디라 순이 서향
저비호야 곧 오더 신이 힘이 진호였노 디라 사라
서 나라 흡잡디 못호오니 죽어 맛당이 모던 귀신
이 되어 도적을 죽이 리이다 호고 성이 함몰호매
두사람이 잡히이니 저괴 순드려 곧 오더 드르니
공이 빠호제 크게 소리호면 눈마이 썩여 디고노

처피나며니를라다브아디터라하니엇더그
 대도록하니노순이곧오디내역적을호입에숨
 키고져호디힘이곧엇노라한대즈기노하니
 칼로순의 입을 썩치니순이부지저곧오디나는
 님군을위하니죽거니와너는도적을붓조츠니
 이는개똥과흔가지로도도적이협박하니항복
 바드리하니늘종시곧티아니고죽으니이새
 남제운과되만출두사람이사로잡혀죽고허원
 은독산의게잡혀가다가언스싸희니르러또흔
 곧치아니고죽으니라

張興鋸死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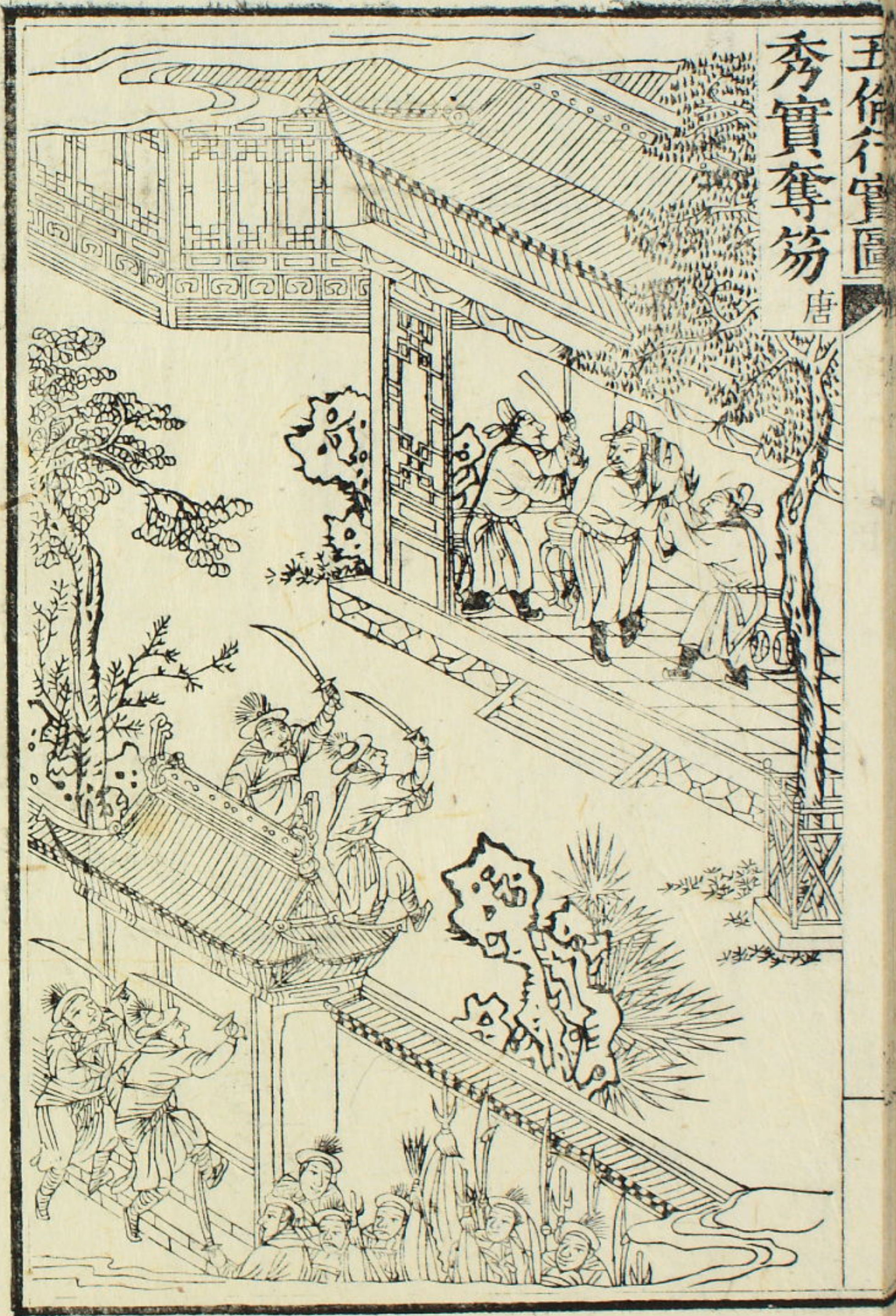
五倫行實圖
張興東鹿人爲饒陽裨將祿山反攻饒陽興嬰城固
守彌年不下滄趙已陷史思明引衆傳城外救俱絕
城陷思明縛之馬前好謂曰將軍真壯士能與我共
富貴乎興曰興唐之忠臣固無降理今數刻之人耳
願一言而死思明日云何興曰天子待祿山恩如父
子羣臣莫及不知報德乃興兵指闕塗炭生人大丈
夫不能剪除兇逆反爲其下哉且足下所以從賊求
富貴耳譬如燕巢于幕豈能久安何如乘間取賊轉
禍爲福長享富貴不亦美乎思明怒鋸解之罵不絕
口以至于死

詩彌年不下守孤城併力攻圍勢已傾自謂固無
降賊理是知真箇丈夫情 被執纔餘數刻生君
臣大義說分明身膏鋸上忠肝裂罵賊終然不絕
聲

장흥은당나라속녹사름이니요양고을비장이
되엇더니안녹산이반항여요양을티니흥이성
을구디디히여오래항복디아니하더니녹산의
당슈스스명이군스름거느려요양을에위바니
성이적고구병이오디아니하느니라스명이성
을과하고흥을사로잡아다래여곧오디장군은

五倫行實圖
참장사라 우리와 부귀를 호가지로 호면엇더 호
노흥이 곧 오디 나느 당나라 통신이라 항복호리
업거니와 내명이 시국에 이시니 원컨대 호말만
호고 죽으리라 소명이 곧 오디 무슴말고 흥이 곧
오디 텃지 녹산을 디점 호시매은혜부조 마드여
군신이 미치리 업거늘 녹산이 은혜 갑호 줄을 모
로고 감히 군소를 니르혀나라 흘범 호여 성민을
도탄 호니 대양 뷔능히 흥적을 버히디 못 호고 도
로혀그 신해되라 네도적을 좃참은 부귀를 구 호
미어니와 비컨대 저비장막에 깃드림 마드니 엇

다오래 평안 호리 오네 승간 호여 도적을 잡으면
해도로혀 복이 되어 부귀를 기리 누릴 거시니 또
호아름답디 아니 호라 소명이 대노 호여 흥을 톱
으로혀 죽이니 죽도록 썩 짓기를 곳치디 아니 호
더라



段秀實汧陽人朱泚反以秀實久失兵必恨憤且素
 有人望遣騎召之秀實與子弟訣而往見泚曰犒賜
 不豐有司之過天子安得知之宜以此諭將士迎乘
 輿泚不悅秀實與將吏謀誅泚未發泚遣韓旻將兵
 迎駕實襲奉天秀實曰事急矣乃詐為姚令言符令
 旻且還謂同謀曰旻還吾屬無類矣我當直搏泚殺
 之不克則死使劉海賓等陰結死士為應旻至泚大
 驚召李忠臣源休及秀實等議稱帝秀實勃然起奪
 休象笏前唾泚面大罵曰狂賊吾恨不斬汝豈從汝
 反邪以笏擊泚中顙流血齧面忠臣助泚泚得脫走

秀實謂泚黨曰我不同汝反何不殺我衆爭殺之

詩姚符詐作問何緣爲遇旻軍襲奉天扞衛于艱
功不細芳名千載孰居先 黨惡崇姦寔有徒勃

然抽笏便忘軀形骸縱被人爭殺徇國忠誠竟不
渝

단슈실은당나라견양사름이니쥬지반한매슈
실이본리인망이잇고이새오래병권을일허반
드시도명을원망하리라하여군소를보내여브
르니슈실이집사름으로더브리영결하고가쥬
즈를보아의리로키유하여련즈를마즈라한대

쥬지듯지아니하거늘슈실이당니로더브리쥬

즈죽이기를썩하더니쥬지당슈를보너여군소

를거느려대가틀마즈라하니기실은봉련^{덕종}

일이급한디라하고이에거죽요령언^{쥬조의}의병

부를하여가는양슈로도르블너도라오니쥬지

크게놀나니통신원휴와슈실을블너황테일곳

기름의논한대슈실이불연이니러나원휴의가

진흙을아사즈의늦쳐춤밧고크게부지저곤오

디미친도적놈아내너를버히지못하는줄을은

한

ㅎ노니엇디너를조차반ㅎ리오ㅎ고홀로조를
 ㅅ려니마를마치매피홀너늦치ㄹ득ㅎ디라니
 ㅄ신이쥬조를구ㅎ여드라나니슈실이ㅄ의당
 드려닐너곧오디네너희와ㅄ치반치아니ㅎ니
 날을죽이라ㅎ대모든도적이드토아죽이니라

演芬快死 唐



石演芬本西域胡人事李懷光至都將尤親信畜爲
假子懷光軍三橋將與朱泚連和演芬使客郃成義
到行在言懷光無破賊意請罷其總統成義走告懷
光子璫懷光召演芬罵曰爾爲我子奈何欲破吾家
今日負我宜卽死對曰天子以公爲股肱公以我爲
腹心公乃負天子我何不負公且我胡人無異心惟
知事一人不呼我爲賊死固吾分懷光使士鬻食之
皆曰烈士也可令快死以刀斷其頸德宗聞之贈兵
部尚書賜其家錢三百萬斬成義於朔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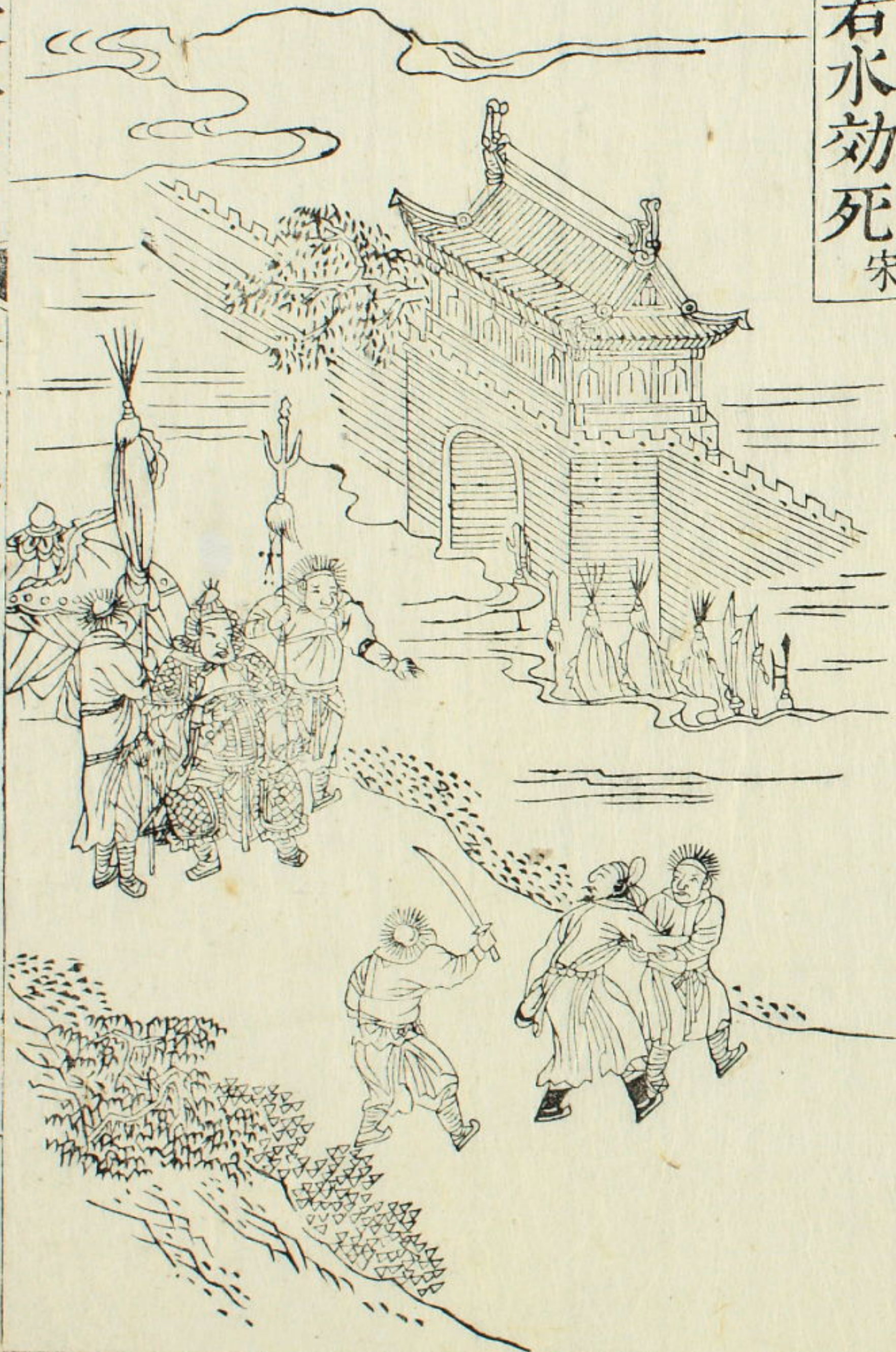
詩將軍總統擅兵機與賊連和國事非唯有胡人

無異志冀陳行在反相違 公負君王我負公惟
知事上竭孤忠竟遭斷頸能全節千載爭欽烈士
風

석연분은당적셔역사롭이니절도스니회광이
사랑하여양조를삼앗더니회광이장춧역적쥬
조로더브러년화하라홀시연분이마만이그뜻
으로버턴조고고하니회광이알고연분을블러
쥬지저조오디네네아돌이되여셔이제나를저
브러우리집을망하러하는다분이조오디턴조
논공으로버고핑을삼고공은날로버심복을삼

앓는니공이 타마련즈물비반하니내엇디공을
 저바리디아니하리오나는오직훈님군만아노
 니나는역적이아니니죽어도훈이업소리로다
 훈대회망이군스로하여곰분을쓰저먹으라하
 니다곧오디널시라수이죽게하쟈하고몬져목
 을버히니련지드르시고분을병부상셔를튜증
 하고돈삼백만을그집의주시다

若水効死 宋



李若水洺州人靖康三年徽宗至金營以吏部侍郎
扈從金人逼帝易服若水抱持而哭詆金人爲狗金
人曳出擊之敗面氣結仆地粘罕曰必使李侍郎無
恙若水絕不食或勉之曰今日順從明日富貴矣若
水嘆曰天無二日若水寧有二主哉其僕亦慰解曰
公父母春秋高若少屈冀得一歸覲若水叱曰忠臣
事君有死無二吾不復顧家矣然吾親老汝歸勿遽
言令兄弟徐言之可也後旬日粘罕召計事若水因
歷數而罵之粘罕令擁之去若水反顧罵益甚監軍
者搥破其脣噴血罵愈切至以刃裂頸斷舌而死臨

死歌曰矯首問天兮天卒不言忠臣効死兮死亦何
愆

詩胡兵逼帝易黃衣吏部哀號獨抱持矯首問天
天不語臨終一曲最堪悲 雙親已老勢阨危何
不將身少屈爲縱使順從明日貴歲寒高節孰能
移

니약슈는송나라명주사름이니정강^{송흠종대}삼
년에회종황데금인^{오랑개라}의게잡히여가니이새
에약쉬니부사랑벼슬로황데를되시고갓더니
금안이테를핍박하여황포를벗기고청의를받

고아남히려흐거늘약쉬테를안고울며금인을
개라고부지존대금인이약슈를쓰어내어어즈
러이려늦치새여디고괴절흐여싸히업더디니
금당슈점한이닐오디니사랑을죽이디말라흐
니약쉬밥을먹디아니흐고죽고져호대후이권
흐약곧오디오늘터를순종흐면니일부귀흐리
라약쉬탄식흐여곧오디하늘에두날이업느니
내엇디두님군이이시리오흐니약슈의종이또
흐프러닐오디공의부되나히늘어시니져기곧
흐여사라도라가미엇더흐노약쉬사지저곧오

디통신이님군을섬기매죽어도두모음이업느
니내다시집을도라보디못흐노라그러나내어
버이늘으시니네도라가내죽는줄을금히숨디
말고내형테로흐여곰종용히고흐게흐라후에
덤한이약슈를불러일들의논흐거늘약쉬인흐
여수죄흐여부지즈니잠아느리위그입을려새
치거늘약쉬피를섬으며더욱사지존대칼로베
목을베고혀를버혀죽이니약쉬죽기롤님흐여
노래흐여곧오디마리롤드러하늘기무르미여
하늘이므춤내말을아니흐시노또다통신이죽

